

반세기에 걸친 대한민국 전력기술회사의 역사  
한국전력기술의 지나온 역사자료를 찾습니다

## 한국전력기술 역사관 사료 수집 공고

국민 여러분이 제공하여 주신 자료들은  
한국전력기술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  
재조명하는 사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수집물품**  
- 한국전력기술 역사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치있는 물품

**수집기간**  
- 2021년 07월 26일(월)~11월 30일(화)

**수집대상**  
- 해당 물품을 소장한 개인(법인, 단체) 등 전 국민 대상 접수

**제공방법**  
- 신청서식에 따라 사진과 함께 이메일로 사전 접수 및 협의

**제공문의**  
- 한국전력기술 홍보팀 역사관 유물수집담당자  
(rainbow@kepc-enc.com, 054-421-3026)

**참고사항**  
- 제공 사료에 대하여는 역사관 유물 평가위원회를 거쳐 보상 후 귀속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epc-enc.com](http://www.kepc-enc.com)) 내 공지사항 참조

서울 삼성동 본사(1986.12~1995.10)  
서울 공릉동 KABAR 입주건물 (1975.10~1981.04)  
한국원자력연구소 내 대전사옥 (1997.01~)  
용인 사옥(1995.10~2015.08)  
서울 여의도 별관(두레빌딩)  
서울 여의도 별관(쌍미빌딩)  
서울 여의도 본사(1981.01~1986.12)

 한국전력기술

KEPCO

**E&C**  
Engineering & Construction

Family

2021. 09+10

마음의  
**窓**

2021 09+10  
**KEPCO E&C  
 Family**



통권 466호 2021년 9.10월호(격월간)

발행인 김성암  
 발행일 2021년 9월 10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울곡동)

전 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메일 miru@kepco-enc.com

인 쇄 동아인쇄(주)(054-433-4454)

**04 Sci-Tech**

우리는 메타버스를 타고 간다

**06 Brief News**

ASME N 인증 갱신  
 코로나19대응 業연계 안전 예방활동 실시  
 국제표준(ISO) 품질-안전보건-환경 통합경영시스템 갱신 심사 및 인증  
 김천시 에너지취약계층 냉풍기 후원  
 2021년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취득 및 최초 연료장전 기념행사  
 2020년도 우수 기술개발과제 및 지식자료 포상  
 보훈가정 지원에 앞장  
 장애인 네일케어 사업장 '섬섬옥수' 김천구미역점 개소

**10 ISO 출판 공로상**

ISO 국제표준 출판 공로상 수상, 장현영 스마트융합실장

**12 이달의 한기인**

원전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설계 '최우수 지식인' 송이철 부장

**14 경영개선 아이디어**

윤방열차장의 경영개선 아이디어

**16 생각하는 한기인**

원자력발전소 설계와 철학적 사고

**18 직원사진 참여 마당**

여의도 빌딩숲

**19 이 달의 한컷**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20 추천 여행지**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싶은 인디아  
 더글라스 하우스  
 거제도 외도 보타니아  
 강진 일주일 살기

**26 취미탐방**

시간을 보는 안목 - 강봉주차장

**30 Shall We Meet?**

권태명 조경반장 "인생 V를 그리며"

**32 쉬어가는 페이지**

전기 없이 살 수 있을까

**34 머니머니**

잔돈에 강하고 큰돈에 약한

**36 맛집 탐방**

뉴렘, 순한 양의 부드러움

**38 술익는 마을 : 우리 술을 찾아갑니다**

세계 속의 한국 와인을 꿈꾸는 여포와인농장

**40 작가의 흔적**

적어도 2주는 있어야 하는 사람

**44 Culture**

지상에 남길 단 한 편의 영화 '길'

**46 사보기획 이야기**

독자와의 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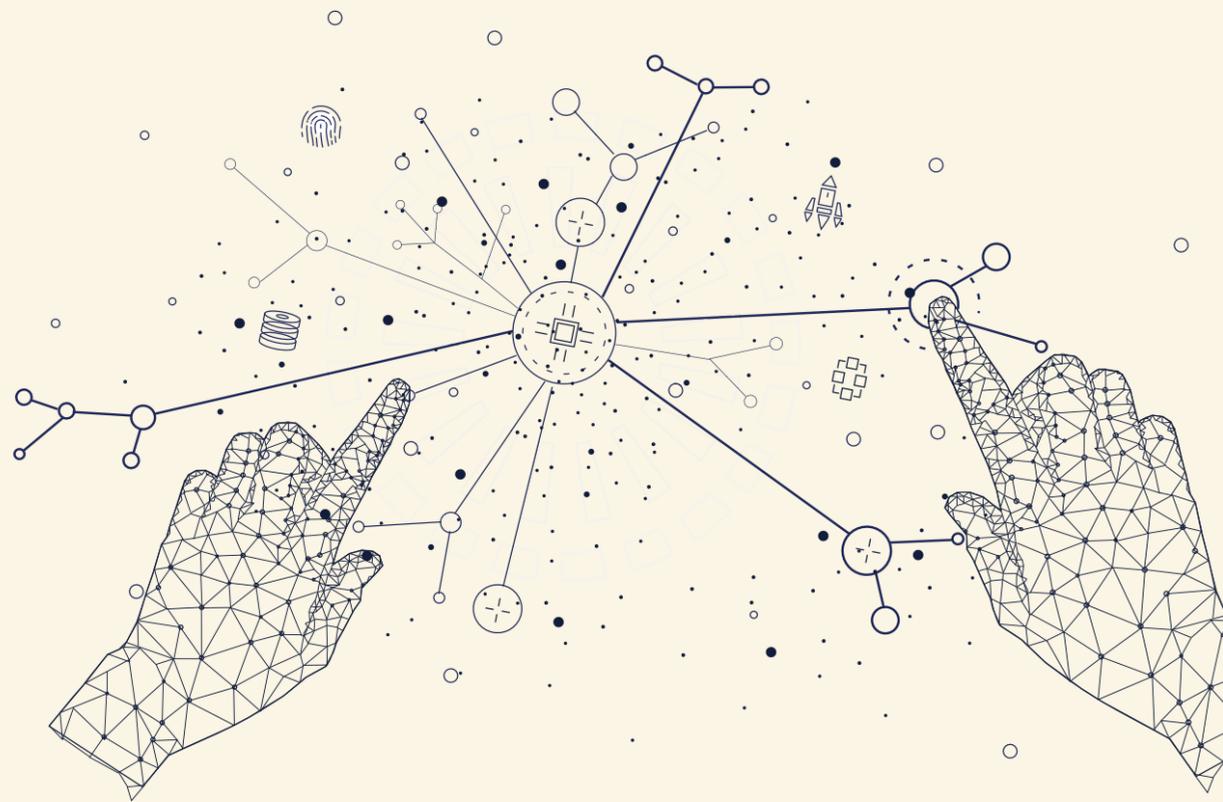
기탄찰리(부분 발췌) / 타고르

내 여행 시간은 길고 그 길은 멀니다.  
 나는 태양의 첫 햇살을 수레로 타고 출발하여  
 슬한 恒星과 遊星에 내 자취를 남기며  
 광막한 宇宙로 항해를 계속 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먼 길이며  
 그 試練은 가장 단순한 가락을 따라가는  
 가장 복잡한 것입니다.



# 우리는 메타버스를 타고 간다



4차 산업혁명에서 메타버스가 부상하고 있다.

Metaverse는 직역하면 '형이상'+'우주'라는 합성어이다. 메타는 현대에서 철학적 의미의 수식어로 '무엇에 관한 무엇'으로 초월적 뉘앙스를 갖는다. 메타버스가 난데없이 나타난 줄 알았는데 살펴보니 20년전 유행했던 가상현실(Virtual Reality)과 유사한 개념이다. 새로운 스토리를 꾸려가는 흥행법이 뛰어난 미국은 경영과 IT분야에서 이것을 신조어로 포장하여 파는 모우먼트 비즈니스가 발달해 있다.

우리 회사는 6년전 발전소에서 화재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요원이 비상대피하는 과정을 3D 시뮬레이션으로 제작한 적이 있다. 발전소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한 통로로 이루어져 이걸 입체적 3D로 구현하는데 상당한 자금이 들어간 걸로 안다. 이게 메타버스 초기 버전 형태라면 지금은 좀 더 정교하고 화려하게 변신하였다.

메타버스의 새로운 가능성은 응용 범위가 폭넓기 때문이다. 미국 로브록스가 제작한 메타버스는 미국 초등학생이 열광하여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로브록스는 '초통령'이라 별명을 얻었다. 네이버의 제페토는 해외 이용자 수가 많다. 메타버스 속에서 음악과 노래를 듣고 유명인의 공연과 연설을 접하기에 일본 소니도 참여를 서두르고 있다.

메타버스 활용은 크게 게임, SNS, 비즈니스와 교육 3가지로 볼 수 있다. 세 분야는 서로 아이디어와 잠재력이 중첩되어 있다. 우선 얼마나 실감나는 아바타와 가상세계를 구현하는가, 그 다음 현실과 접목하여 어떻게 인간 욕구를 풀어내는가, 마지막 비즈니스와의 연결이다. 메타버스에서 개인은 아바타로 활동한다. 아바타는 자신의 옷, 액세서리, 장비를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구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슬기는 메타버스에서 공간을 할당받아 거기에 예쁜 집을 짓고 좋아하는 가구를 제작하여 친구를 초대하였다. 슬기가 만든 화병, 책장, 침대를 사겠다는 아바타 친구들이 많아 슬기는 큰돈을 벌었다. 메타버스용 디자인 도구만 있다면 가능한 이야기이다. 전자기학을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수강하는 현우는 사이먼 교수가 가장 유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메타버스 강의를 따로 신청했다. 실제로 사이먼 교수가 아바타로 등장하여 복소평면좌표에서 90도 각도로 움직이는 전기의 주기적 흐름을 입체 홀로그램으로 보여 주었다. 현우는 비로소 공식의 개념을 이해하였다.

이런 응용 방식은 SNS와 쇼핑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페이스북, 카톡, 줌과 같은 관계형 SNS 플랫폼에서도 메타버스를 어떻게 적용할지 연구 중이다. 엔비디아는 메타버스 실현에 앞장 서겠다고 선언했다. 3D로 복잡한 모션을 구현하려면 높은 GPU 성능의 칩이 필요하다. 하드웨어로는 엔비디아, 메타버스 제작

플랫폼으로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유망하다. 그러나 메타버스가 곧 도래하리라 판단하여 성급히 투자하지는 마시라. 아직 분명한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메타버스 문이 조금 열린 것뿐이다.

메타버스와 아바타의 고전적 개념을 근원부터 바꾸는 혁신 기술이 최근 구글에서 나왔다. 구글은 'Starline Project' 결과를 유튜브에 공개하였다. 흑인 이모와 조카딸은 멀리 떨어져 사는데 벽인지 스크린인지 앞쪽을 바라본다. 화면이 켜지자 실물 모양 그대로의 조카가 바로 눈앞에 나타났다. 화면은 공간 폭과 넓이를 실물 3D로 느낄 정도이다. 기술을 알아보면, 피사체를 3D로 리모델링하여 이 정보를 최대한 압축하고 상대방에게 신속히 보낸다. 받은 정보는 재구(再構) 되어 바로 스크린에 나타난다. 마치 스타트렉에서 인간을 분자 단위로 송출하여 다른 공간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다. 더욱이 헬멧이나 고글 같은 특수 시각 장치를 착용하지도 않는다. 이 기술이 적용되면 학교, 병원, 직장 등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발전소에 들어가는 대형기기와 기자재 배치, 토목 공간 등을 3D 모델링로 구현하는 작업은 우리 회사도 오래전부터 시도해 왔다.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으로 메타버스는 보다 다양하게 현실 속으로 파고들어 여러 분야에서 응용된다. 미래에 원자력발전소 제어훈련은 메타버스로 구현되리라 상상한다.

메타버스의 상상과 현실의 실물은 차츰 연결되어 한 점에 모이는 컨버전스를 이룬다. 실재를 모방하여 가상으로 만든 세계가 실물보다 진짜 같다면 그것은 실물을 대체할 것인가?, 아니면 가상세계라도 우리는 실물처럼 이를 엄정하게 대해야 할까? 아니면 허상은 허상에 불과한 것일까? 이 질문은 '우리가 보는 세계는 진짜일까, 가짜일까?'와 같은 질문이다. 철학과 종교는 진위(眞僞) 문제를 무척 고민해 왔다. 원효는 사람은 자신이 상상한 호랑이에 그 자신이 물려 죽을 수 있는 존재로 보았다. 최근 과학은 인간은 진위 판별 능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인간의 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이란단. 결국 마음이 그게 진짜라고 믿으면 진짜가 되고 가짜라고 믿으면 가짜가 된다. 현실보다 메타버스가 진실이라 믿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다. 메타버스 타고 가는 미래를 예상해 보았다. **E&C**

# KEPCO E&C News

## ASME N 인증 갱신

미국기계학회(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로부터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ASME N-Certificate'에 대한 갱신심사를 받았다. 우리는 UAE 원전사업을 기반으로 ASME 인증갱신추진반을 구성하였으며, ASME 최신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보증시스템의 수립과 운영능력이 적합함을 입증하여 인증 갱신에 성공하였다. ASME 인증은 회사가 원자력발전소 설계는 물론 더 나아가 제작 및 설치 후 해당 품목에 회사 이름으로 'ASME' 스탬프를 보유함을 의미한다. 회사는 원전 해외수출의 기반을 구축하고, 품질보증능력의 국제적 공인 및 회사 인지도의 제고를 위해 ASME 원자력 자격인증 프로그램(Nuclear Certification Program)에 따라 3년마다 자격인증을 갱신하고 있다. 이번 인증 갱신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 및 대외 신뢰도를 높였다.



ASME N 인증 갱신

## 코로나19대응 業연계 안전 예방활동 실시

참사랑봉사단 주관으로 8월 11일 김천시 종합병원을 방문해 業연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비상시 의료기관의 전원차단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사전예방 차원이다. 참사랑봉사단은 김천제일병원과 김천의료원의 비상발전기 소음측정과 진동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시설 관리자와 면담을 통해 유지보수 지원에 대한 향후 일정 등을 협의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으로 지역사회 의료체계에서 비상시 안정적 전원공급으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에너지기술을 활용한 業연계 사회적가치 향상과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대응 業연계 안전 예방활동 실시

## 국제표준(ISO) 품질·안전보건·환경 통합경영시스템 갱신 심사 및 인증

8월 2일부터 5일까지 한국표준협회의 국제표준 품질(ISO 9001), 안전보건(ISO 45001) 및 환경(ISO 14001)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 갱신심사를 받았다.



국제표준(ISO) 품질·안전보건·환경 통합경영시스템 갱신 심사 및 인증

심사팀은 품질·안전보건·환경 통합경영시스템의 요건, 적용 범위 및 고객 요구사항 등에 따른 제반 체계 및 이행상태를 심사하였으며, 전 직원의 협력으로 부적합 사항 없이 통합경영시스템이 최신 국제표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심사를 통해 품질·안전보건·환경 통합경영시스템이 성공적임을 인증 받았다. 품질·안전보건·환경 경영시스템을 3년 주기의 인증갱신 심사와 매년 사후관리 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한다.

## 김천시 에너지취약계층 냉풍기 후원

회사는 8월 3일 김천시 에너지취약계층에 냉풍기 100대를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송언석 국회의원의 요청과 더불어 회사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재확산 및 무더위로 지친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함이다. 제공한 스마트 냉풍기는 중소기업 동반성장몰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이번 물품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이외에도 지난 7월 임직원 및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2021 김천자주 온라인축제' 활성화 이벤트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자두 총 2,500박스가 판매되어 성황리에 축제가 마무리 되었다. 김성암 사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대면활동이 제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사회의 니즈를 고려한 한국전력기술만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천시 에너지취약계층 냉풍기 후원

## 2021년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은 협력적 노사관계와 상생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는 총 106개 사업장이 신청하였으며, 열린 경영 및 노동자 참여, 임금 적정성 및 격차해소 노력, 근로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 등 6개 분야에서 1차 서면심사와 2차 경진대회를 거쳐 37개 우수기업이 선정되었다. 선정 기업들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모범납세자

# KEPCO E&C News

선정시 우대 등의 지원을 받는다. 회사는 1987년 노동조합이 창립된 이래 노사간 소통과 열린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안정적 노사관계를 지속하였고, 16년 연속 무분규 평화사업장을 유지 중이다.

김성암 사장은 “한국전력기술의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은 열린 경영을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로, 앞으로도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일하기 좋은 회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취득 및 최초 연료장전 기념행사

7월 14일 신한울 현장에서 신한울 1호기 최초 연료장전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기념식에는 김성암 사장과 한국수력원자력(주) 정재훈 사장을 비롯한 관련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신한울 1호기는 설비용량 1400 MW급으로 모든 설계와 시공을 마치고 규제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난 7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가 발급되었다. 신한울 1호기는 국내 27번째 원전이자 UAE에 수출한 원전과 동일한 APR 1400 노형으로 국내에 신고리 3,4호기가 가동중이며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설계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특히 신한울 1호기는 원자로냉각재펌프(RCP) 및 원전계측제어 시스템(MMIS) 등 핵심설비 국산화를 통해 기술자립을 이뤄낸 국내 최초의 발전소다. 신한울 1호기는 최초 연료장전 작업을 시작으로 약 8개월간 시운전시험을 거쳐 2022년 3월 상업운전 계획이다.

### 2020년도 우수 기술개발과제 및 지식자료 포상

2020년도 우수 기술개발과제 및 지식자료 등록 포상을 실시하였다. 회사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매년 실시되고 있는 이번 포상은 기술개발과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과제 참여자 동기 부여를 위한 ‘우수 기술개발과제’ 분야와 회사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양질의 지식 공유에 기여한 ‘우수 지식자료’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2020년도 수행 기술개발과제와 등록 지식자료를 대상으로 기술심의 전문위원회와 본위원회 2단계 심사를



2021년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2020년도 우수 기술개발과제 및 지식자료 포상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취득 및 최초 연료장전 기념행사



장애인 네일케어 사업장 '섬섬옥수' 김천구미역점 개소

거쳐 수상자가 최종 선정되었다. 앞으로도 기술개발과제 및 지식자료 등록을 활성화하여 높은 수준의 지식 창출과 기술 경쟁력 제고를 지속적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보훈가정 지원에 앞장

회사는 보훈가정 복지사업 기금펀딩을 통해 '사랑찬(饌)·행복찬(饌)·밀반찬(饌) 행복 드림' 합동 후원활동을 전개했다. 6월 22일 71주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펀딩 참여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KPS, 대구은행과 함께 경북남부보훈지청과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펀딩기금전달식을 가졌다. '사랑찬·행복찬·밀반찬 행복 드림'은 생계가 어려운 보훈가정과 취약계층 75가구를 대상으로 7월부터 주회, 총 26주 동안 밀반찬을 지원한다.

### 장애인 네일케어 사업장 '섬섬옥수' 김천구미역점 개소

회사는 여성 장애인의 직업훈련 기회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KTX 김천구미역에서 네일케어 사업장 '섬섬옥수' 개소식을 가졌다. '섬섬옥수' 사업은 당일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무료 네일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 장애인들이 일하는 안전한 사업장을 마련하여, 맞춤 직업훈련 및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취지이다. 나아가 고용 취약계층인 여성 장애인이 '섬섬옥수'에서 경험을 향후 네일케어 산업에 취업하여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이뤄내도록 돕는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4개 기관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맺은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추진했다. 회사는 '섬섬옥수' 김천구미역점을 통해 2025년까지 약 1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대구·경북지역 여성 장애인의 경력개발 및 고용 안정에 힘쓸 계획이다. E&C

# ISO 국제표준 출판 공로상 수상, - 장현영 스마트융합실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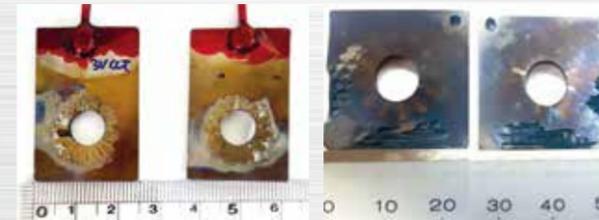
국제표준화기구의 금속·합금 부식위원회 총회는  
장현영[현: 한국부식방식학회 부회장] 스마트융합실장이 출판한  
“금속(Ti 합금) 3D프린팅 제품의 수명평가를 위한  
내식성 시험법”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ISO 국제표준 출판 공로상을 수여하였다.



장현영 스마트융합실장

기술을 소개하면, 기계적 물성이 일반 가공재에 비해 뛰어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3D프린팅 티타늄 혹은 니켈 합금 등의 제품을 수중(水中)에서 그 수명을 단시간 내 평가하는 시험 방법이다. 이 시험법을 통해 최근 원자력발전 분야뿐만 아니라 항공산업의 단종부품을 소량 생산하거나 파손부품의 복원에 적용하는 금속 3D 프린팅 제품을 대상으로 신뢰성과 수명을 정확히 평가하게 되었다.

장현영 실장은 “3년간 표준개발에 공동 참여한 국내 대학들과 연구소들은 기본적으로 얇은 층의 금속을 레이저나 전기용접으로 다층화 시키는 금속 적층재료(3D 프린팅 재료)의 부식거동이 압연, 주조, 단조 등 일반 가공재와 확연히 차별되는 메커니즘을 밝혀냈다.”고 설명한다. 기존 시험법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웠던 의료분야를 위해서는 추가로 2개의 표준을 상정하였다.



총성 없는 글로벌 표준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가가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도구이자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표준은 특히 중요하다. 장 실장은 “국제표준은 강제성이 없지만 대부분 국제협정이나 민간기업 등에서 국제표준을 의무규범으로 채택하기에 사실상 강제규범이다.”고 언급하면서 “회원국들은 각자 개발하는 국제표준이 자국 산업과 수출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다른 제안자들과 참여하게 대립하는 경우는 개발이 중지되어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과정을 설명하였다.

2008년부터 ISO 기술위원회에서 한국 대표로 활동 중인 장 실장은 여러 검사측정법을 출판한 적 있다. 그 중 두 가지를 예시하면 ▲원자력발전소 재료의 선택적 침출 검사법 ▲원통형 튜브 기하구조물의 임계틈 부식온도 측정법이다. 임계틈 부식온도 측정법은 복수기 및 열교환기 전열관 수명평가에 적용하기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세계표준의 날’ 산업부장관상을, 2018년에는 ‘ISO 우수상’을 수상한 이력도 있다. 이런 활약으로 2019년 ISO 분과위원회 의장(convenor)으로 선임, 3년간의 임기(사실상 종신제)를 맡았다. 의장은 국제표준안을 작성하는 워킹그룹의 운영과 회의를 주재하고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하는 그룹 리더이다.

국제표준 제안은 특별히 어렵지 않다.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많아 누구든지 국제표준을 제안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관련 전문가들이 국제표준 활동을 적극, 또 꾸준히 펼치도록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뒷받침되면 충분히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장실장은 힘주어 말한다.

현재 유럽 원전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한전기술도 ISO 국제표준에 대한 관심이 차츰 커지고 있다. 그런 관심에 비례하여 기업 존재감도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장 실장은 다양한 국제표준 개발을 통해서 한국형 엔지니어링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당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 또한 기업의 가치(valuation)을 높이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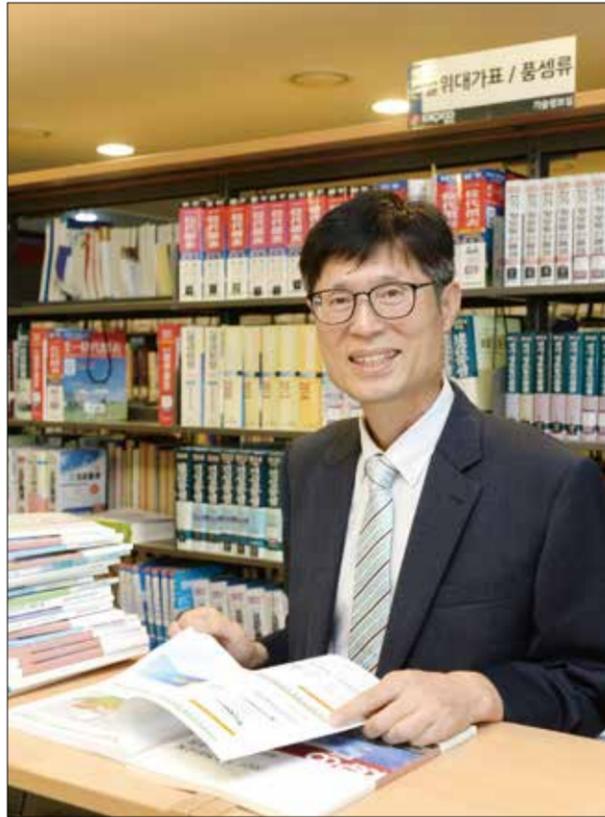
註) 항공, 자동차, 통신의 기술개발 초창기에는 다양한 실험적 모델이 등장하여 경쟁을 펼친다. 여기서 소수 승자만 살아남아 그 분야의 표준화(standardization)를 이루고 승자는 이익을 독점한다. 과거는 주로 ‘경쟁 이후 표준’ 구도가 이루어졌지만 현대는 다양한 기술기준과 잠재적 표준이 시장 이전부터 치열한 경쟁을 하여, 표준화가 먼저 정립되기도 한다. 이러면 다른 표준 방향으로 기술개발한 기업과 연구소는 경쟁 기회를 잃어 큰 손실을 겪는다. 텔레비전, 모니터, 통신모듈 방식에서 여러 방식의 표준전쟁이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장현영 실장은 이런 배경에서 표준의 중요성을 소략하고 있다. 사보 뉴스 독해가 어렵다는 사외독자를 위해 편집 주를 달았다. E&C

# 원전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설계 '최우수지식인' 송이철 부장

처음 만난 자리에서 송이철 부장은 “맥스웰 방정식에서 나왔습니다.”로 운을 뗐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는 에든버러의 푸른 언덕과 고성(古城)이 눈앞에서 스쳐 지나가고 데이비드 흄의 묘지가 나타났고 고양이 낙하실험을 한 괴짜 수학자 맥스웰의 “빛은 전자기파이다.”라는 말이 귀속에서 메아리 쳤다.

현대문명은 전기의 발견이란 토대로 이루어졌는데 초창기 사람들은 전기와 자기는 별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다가 그 두 가지가 기묘하게 엮인 현상을 알아내고 무척 놀랐다. 지금은 전자기(電磁氣)를 라디오, 텔레비전, 스마트폰, 전자레인지에 사용하고 누구나 공기 중에 온갖 전파들이 떠돌아다닌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맥스웰은 전자기파도 빛처럼 빠르게 움직인다는 걸 수학적 공식 몇 개로 간단히 정리하였다.

세간에 EMP 폭탄의 위력이 심심찮게 나온다. 중국이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나들며 무력시위 할 때 대개 20여대 전투기는 정보정찰기와 함께 선두에 전자전기가 선다. 이 비행기는 타이완 방공망과 작전지휘부의 전자기기를 교란하여 먹통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송 부장 설명에 따르면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실제로 전자기 폭탄을 사용하였고 그게 지상이 아닌 상공에 폭발하기에 요격조차 힘들다고 말한다. 그러면 북한 작계(作戒)에서 국내 원전에 EMP탄을 터뜨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스럽다. “언론에 의하면 울진원전 상공에 북한도 EMP 공격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어. 원전도 구형과 신형이 있는데 예전 건설한 원전이 좀 더 취약하지요.” 전자기파가 두꺼운 강화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는지 궁금했다. “콘크리트 중간 사이마다 니켈과 구소 특수 강판을 삽입하면 차폐막이 형성되어 막기는 합니다. 문제는 케이블, 출입구, 환기구 같은 약한 고리를 뚫고 침입하는 EMP를 주의해야 합니다.” 송 부장은 특히 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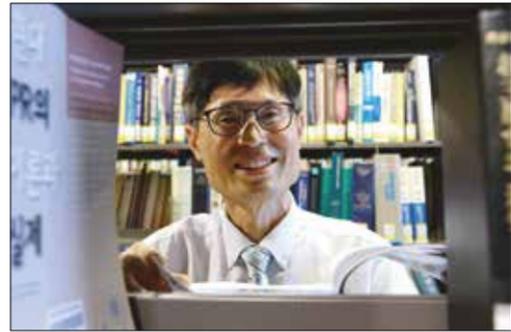


터 센터의 서버, 전자 저장장치, 통신 등 전자적으로 작동하는 모든 기기는 EMP 영향하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원전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설계' 분야에서 송 부장은 최우수 지식인으로 선정되었다.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을까? 1997년 미국 EMP 심포지엄에 참가한 계기가 있었다. 그 이후 줄곧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고 근자에 '방호용 변압기 차폐용 정전차폐막' 특허출원 신청도 하였다.心和氣는 함께 일어나는 법인데 어떤 대상에 올인하면 세상이 그걸로 채색되어 보인다. 자신이 평생 천착한 분야를 나와 같이 모르는 사람에게 풀어 이야기할 때는 답답한 심정과 열정이 어울려 자기 마음을 전달하려 무진 애를 쓴다. 그러한 진지함이 무척 돋보였다. 연신 그의 입에서는 권선, 고압축 선단방지, 대전류, 고주파 펄스, 전자기장 같은 용어가 인터뷰 도중 쏟아져 나왔다.

국내에서 EMP에 매진하는 전문가는 어느 정도일까? 그런 계층이나 인물은 많지 않을 듯하다. EMP는 국방과 연계한 기밀로 다루어져 선진국이 정보를 잘 공개하지 않는 분야이고, 전자기장의 간섭작용이 전자기계와 인체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빛은 전자기파이다”  
- 수학자 맥스웰 -



실증연구나 자료는 아직 많지 않다. 무엇보다 전자기학은 과학적으로 기기묘묘한 구석이 있다. 원전의 내외공간에서 전압이 급증하다 바로 급감하는 출렁임(fluctuation)이 몇 번 일어나면 주 제어실 모니터와 계측기 절반 이상이 꺼져버리는 현상이 유럽 원전에서 목격된 적 있다. 그때도 과학적 입증과 설명이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송 부장은 EMP 방호 연구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아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설계와 구조물 특성, 건설과 시공, 차폐 소재, 전도성 등이 결부되어 엔지니어링을 총괄하는 한전기술에 가장 적합하다고 믿는다. 또 그의 말을 빌면 이는 성장 동력이자 내일의 먹거리이다. 문제는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고 심화하려는 도전정신에 달렸다. 주위의 큰 관심을 받지 않는 가운데 홀로 묵묵히 길을 헤쳐 걸은 그의 인생살이가 얼핏 눈앞에 드러났다.

송 부장은 퇴직 후, EMP 관련 연구 센터를 세우고 싶은 꿈도 밝혔다. 여기에는 교재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후배에게 남기겠다는 포부도 담겨 있다. EMP 분야의 다양한 자료를 섭렵하고 지식을 보유한 그의 세간살이를 슬쩍 들여다보니 일명 '자료왕국'이다. 그러나 축적한 지식과 경험은 그 사람의 그림자에 불과한데 그 실체가 사라

지면 어떡하나? 또 다른 소망은 식이요법 건강전도사, 아픈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한다. 정체를 알아보니 찌서 말린 알곡 그대로의 볶은 곡식이다. 이게 더 솔깃한 주제이지만 사보에서 생략한다. 참고로 생활 전자파로 따지면 손풍기에는 강한 전자파가 나오는 걸 송 부장이 직접 측정하였다니 직원은 손풍기를 가슴이나 얼굴 가까이 대지 않는 쪽으로 전문가의 팁을 따르자.

처음과 마지막은 맥스웰 방정식으로 마무리한다. 난해한 물리공식 없이 순전한 상상으로 그려보았다. 전자는 마치 극소형의 작은 팽이로 빙글빙글 회전하면서 90도 직각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 또 그 방향과 직각으로 전기장이 더불어 만들어진다. 결국 이것은 벡터장이다. 테슬라는 이 원리를 응용하여 발전모터를 천재적으로 구상하였다. 장(field)의 공간에서 움직이는 것은 물처럼 흐른다. 이것은 또 유체현상이다. 바다에서 파도가 일렁이듯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도 넘실거린다. 어떤 물결은 대단위 강력하다. 그 파도를 막지 않으면 모든 게 휩쓸려 가버린다. 송 부장은 방파제 위에 올라 먼바다를 바라보며 테라포트를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있다. E&C



## 윤방열 차장의 경영개선 아이디어



간혹 영자신문에서 '컨넌드럼 Conundrum' 단어를 접한다. 이 말의 어원을 영미인도 잘 모른다.

굳이 번역하면 우리말 '마하수리' 어감을 가진다. 어렵고 복잡해 도통 모르는 '난제'란 뜻이다. 경영개선제안 최우수상을 수상한

윤방열 차장의 제안서를 열어 본 순간 '컨넌드럼!' 말이 입에서 새어 나왔다. 인터뷰 첫 질문이 얽힌 매듭을

본인도 의식하는지 물었더니 "네, 민감한 일이죠." 그렇게 대화가 이어졌다.

기둥에 칭칭 묶인 밧줄을 풀어 보라는 요구에 알렉산더 대왕은 단칼에 잘라 버렸다. 이런 고르디안의 매듭(the Gordian Knot), 콜롬버스 달걀, 오컴의 면도날 같은 간단한 성질은 아니다. 윤 차장의 개선안은 우선 이해관계자도 많고 기술정책, 인사, 급여와도 연관된다. 제안 동기와 배경을 물었더니 화살의 비유이다. 화살이 꽂혀 괴로운 사람이 이 화살을 누가 쏘았는지, 화살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독약을 발랐는지 고민하는 걸 보고 "먼저 화살을 뽑고 치료해야 하지 않는가?" 이처럼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일종의 시그널입니다."라고 대답한다.



서언이 길었지만 윤 차장이 제안한 내용을 압축하면 1. 기사, PMP, 기술사 등의 자격증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 기술문서에서 자격소지가 서명, 날인할 경우 위험부담의 여지가 발생하는데 이를 적절히 보상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약술하였지만 아이디어를 파고들면 의외로 그 조건의 함수가 복잡하여 여러 파장이 나온다.

PMP 자격증은 과거 보고서로 나온 걸 본 적도 있다. "(취득이) 누워 떡먹기.", "억울하면 너도 따라." 여러 공방이나 효용성과 수당도 논쟁이다. PMP 자격에 탈락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은 어머니 동료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그저 먹는 시험은 아니다. 시험 난도에서 하루 4시간 열공한다면 PMP(6개월)<기사(1년)<공인중개사(2년) 정도가 소요된다. 기사 자격에 비해 PMP 자격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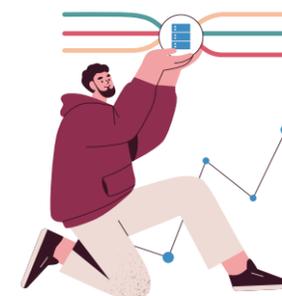
득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은 사실이다. 또 자격을 분류하면 가. 법적 필수, 나. 예비 및 보완, 다. 소양 증진 3가지 목적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범주적 착오가 없다면 PMP는 '다'에 해당한다. 회사정책의 장려(Promotion) 차원에서 시작했다.

자격에 관련된 편견과 비교심리가 문제를 다소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다양한 학력, 전공, 직종의 문제도 얽혀있고 자격의 효용가치, 취득의 난도, 회사의 정책과 제도도 중첩으로 개입한다. 그래서 묘안 도출이 어렵다.



대내외 환경이 투명성 강화와 규제, 제도와 절차의 잦은 변경으로 사무직과 기술직이 겪는 스트레스는 상당하다. 기술문서에는 전문자격 기술자의 서명과 인장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고 예전에는 이게 다소 형식적이었다. 지금은 법적 책임성이 강화되었다. 서명과 인장 찍기는 이제 가벼운 행위가 아니다. 더불어 자격 갱신과 유지 의무도 차츰 가중되어 갔다. 어떤 위험에 노출되면 사람은 당연히 이를 회피하고 싶어한다.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상응하는 어떤 보호나 보상의 문제가 따라야 한다.

처음 윤 차장 제안은 급진적으로 보였지만 속 내용과 해법을 찬찬히 들어보니 점진적 개량주의(Fabian Society)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러 전문 자격증 간의 괴리율을 조금씩 좁혀가고 회사는 필요 자격목록을 작성하여 수요와 공급 따라 이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가능한 사내에서 인재를 육성, 발굴하는 방향으로 유도함이 바람직 합니다....." 본인이 숙고한 여러 방안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계명구도(鷄鳴狗盜) : 맹상군이 특출한 능력자라면 어떤 이라도 자기 집에 초대하여 손님으로 지극히 대접하였다. 그 중 개 도둑과 닭 울음 잘 내는 식객도 있었다. "어디다 쓸려고?" 주변으로부터 불만과 빈축을 샀다. 그러나 맹상군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자 이 둘이 활약하여 그의 목숨을 구해내었다. 다재다능한 인력을 양성하고 보호하면 나중에 큰 힘을 발휘한다는 고사성어이다. 자격과 교육도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한 쓰임에 있다.

자격취득, 갱신, 유지와 관련하여 직원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한 가지 있다. 자격등록기관과 타 엔지니어링 업체 직원 말을 빌면, 한전기술은 자격취득, 갱신, 유지 관리의 지원 정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여러 기업은 개인 의무로 간주하여 회사 차원에서 별도 지원하지 않는 곳이 많다. 상대적으로 누리는 지원 혜택이 그만큼 많음은 다른 직원의 노고 덕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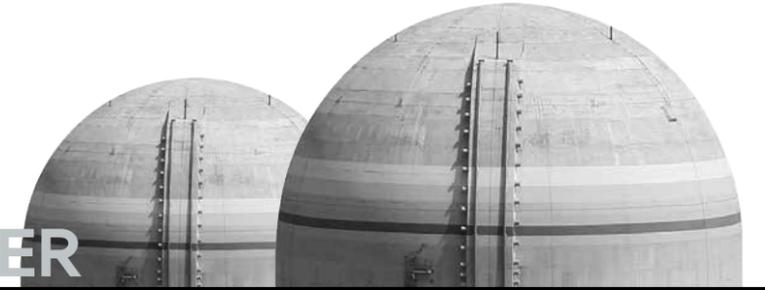
윤 차장 아이디어가 잘 활용되어 좋은 해법이 나오기 바란다. 이와는 별개로 자격의 효용과 가치를 따지지 말고 젊은 직원이려면 3년, 5년 주기를 설정하여 자격증을 하나씩 늘어 간다면 든든한 자산을 갖게 된다. 여러 분야에 대한 상식과 이해가 넓어져 세상을 폭넓게 보는 시각을 얻는다. 언젠가 알게 모르게 자신이 배운 값이 요긴하게 발휘되는 날이 있다. E&C



# 원자력발전소 설계와 철학적 사고

- 문명의 이기는 양날의 칼
- 공학의 근간에 비용-이익 개념이 작용
- 정치보다는 과학
- 깊은 철학적 사고가 필요

## NUCLEAR POWER



최근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관련 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과 규제기관 심사관 사이 주고받은 대화이다. “국내 건설 원전의 격납용기 설계시 항공기 추돌만 생각하는데 북한 장사정포가 우리 남쪽 발전소를 타격하는 경우, 이를 대비한 설계는 어떻게 고려되고 있나요?”, “문의하신 사항은 물리적 방호 관점에서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테러나 전쟁 같은 국가간 공격 위해는 설계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표준원전 건설책임자, 설계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발생 가능한 안전사항을 설계관점에서 고려하지 않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설계자 여러분이 공식회의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요? 원전은 문명의 이기 중 하나이다. 인간이 편익을 위해 만든,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특성을 갖는 기계이다. 여기서 생각해

야 할 요소는 이 편익에 비용의 수반성이 따른다. 두 가지 요소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음을 보여준다. 자동차나 비행기가 주는 공간이동, 시간축소 편익에 반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환경오염 피해를 감수해야 하듯, 발전소도 유용한 경제적 에너지원이지만 중대사고 발생시 생명과 재산 손실을 주는 가능성이 있다. “공짜 점심 없다.”라는 속담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서양 근대 철학의 합리성(rationality) 사고원리이다.

설계자는 편익을 극대화하고 이 과정에서 초래하는 리스크를 제거하거나 수용 가능한 정도로 설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자연스럽게 비용-이익 분석 개념이 적용된다. 이런 사고에는 미국식 자본주의 경영학 체계가 깔려있고, 근원을 생각하면 근대 서구의 도덕철학에 맥이 닿아있다. 원전은 두 가지 기준으로 설계한다. 안전과 성능이라는 원리인데, 성능은 편익 요소이고 안전은 비용이다. 우리는 설계문서 작성시 성능과 안전 두 가지 체계로 작성하여 사업주와 규제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사회 이익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편익 관점에서 다소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 자본주의 근저에는 실용주의(pragmatism) 철학이 있다. 관념적 사고를 배제하고 실생활과 연계 속에서 효과, 효율, 효용을 중시하는 영미 경험주의적 체계이다. 이런 배경하에 자본주의 산업, 금융경제가 만들어졌고 원자력발전소는 비교적 최근 60년 전쯤 나온 산물이다. 실용주의 철학은 250년 전쯤 산업혁명 시기와 동시에 태동한 공리주의 사고방식이다. 벤담의 '최대다수 최대행복'이라는 명제가 대표적 주장이다. 이기적 쾌락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조화시켜

사회적 선(善)을 증가하려는 발상이다. 이를 인간 행위의 선악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최근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마이클 샌델은 '공공성'을 조금 다른 기준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원전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본다. '악마가 인간에게 준 선악과'라고 절대 따먹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더불어 유전자조작 및 인공지능은 인간이 판도라 상자에서 꺼내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의견에 일부 공감하지만 오래전 뚜껑이 열린 현실에서 원전 설계자가 취할 태도를 생각해 본다.

주변에는 반핵, 탈원전의 편향적 사고방식이 문체고 정권만 바뀌면 활성화되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탈원전 정책이 문제인가? 아니면 원자력 산업계에 대한 불신이 문제인가? 이념적, 정치적 주장과는 거리를 두고 과학적, 실용적으로도 판단해야 한다. 일반인에게 원전 실용성을 설득할 수 없다면 탈원전에 동의하는 합리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것이 오히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길이다.

원자력은 70년대, 80년대 시절 권위주의 정권 주도로 선택, 추진된 산물이다. 국민의 판단이나 동의가 필요 없었다. 원자력에 대한 반감은 후쿠시마 재해를 경험하면서 폭발적으로 커져 현재의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원자력 산업계는 이익공동체로 간주, 적폐의 하나로 취급되기도 했다. 우리 회사와 설계전문가는 억울해 할 말도 많다. 한국이 발전한 이유는 경제적 에너지원의 공급이 절대적이란 것을 모르는 이는 없다. 원전의 존재근거를 합리적으로 토론, 설득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전은 사고 발생시 피해 정도와 발생빈도를 기준으로 사건등급을 나누고 이에 따라 설계기준이 정해지고 설계에 반영하여 근본적으로 사고를 방지하거나, 설계 이외 운전, 행정적 조치도 위해성에 따라 대처한다. 단계별 안전성을 확보하는 심층방어(defence-in-depth)를 적용하는 사고가 공리주의, 실용주의 철학에 근거한 합리성이다. 비유하면, 한 사람이 벼락 맞을 확률은 작지만 그런 위험은 늘 존재한다. 이에 대응하여 피부를 절연체로 만들거나 피뢰침을 향시 들고 다니는 것은 아니다.

북한 장사정포 타격 대처는 물리적 방호 관점에서 고려사항이지 격납용기 두께를 늘리거나 재질을 강화하는 설계단계 대처는 아니다. 이는 공학적으로 타당한 답변이다. 공학적 판단과 철학적 사고체계의 부족으로 간혹 동문서답이 일어난다. 테러나 공격에 따른 위해 발생 가능성도 천만분의 일 기준 이하로 설계에 반영하여 대처하진 않지만 별도 방어수단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설계자 : 원자력발전소 설계는 최상위조건부터 2만 개가 넘는 각 부품의 상세 설계조건까지 연역적 방법으로 수행한다. 이 방법은 플라톤의 이데아에서 유럽대륙의 관념론과 이어진 연역법적 사고체계를 따른다. 안전성을 검증하는 결정론적 안전해석 방법과는 별도로 수행하는 확률론적 안전해석방법은 철저히 영미의 경험론, 실용주의 사고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 설계의 근간인 공학적 판단 근거, 더 나아가 철학적 사고와의 연관성을 추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부족하면 생각지 못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곤란해진다. 아니면 질의와 응답이 범주적 착오에 빠져든다. 달리 표현하면 이를 분별함이 더욱 깊은 지식(deep knowledge)이다. E&C





## 여의도 빌딩숲

빌딩 숲 한가운데  
좁은 길목에 서서  
끝없이 치솟은 빌딩들에 둘러싸여  
그들이 주는 위엄을 느껴봤던 기억이 난다.

거기서 오는 약간의 경이로움이  
사진을 찍게 만들었다.

숲속의 나무들이 산소를 뿜어내듯  
빌딩 숲 수많은 직장인들도 땀을 뿜으며  
세상을 굴러가게 하고 있지 않을까.

김덕겸 기계배관기술실 사원 / 아이폰11

의견을 나누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라와 문화 따라 일하는 방식은 다르다. 한-미-일만 하여도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합리적 논리로 움직이고 일본은 협의와 절차로 돌아간다. 비밀 해제된 미국군정보고서나 항공조사보고서를 읽으면 한국인은 의사소통, 회의에 약하다. 뒷사람 뜻을 어기거나 자기 생각을 분명히 밝히는 걸 회피한다. 회의는 상황인식 공유로 끝나고 해법은 무중이다.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회의할까?" 업무를 흔히 꿰뚫는다면 적절히 조언해 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사람은 얼버무리고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 그런데 업무는 실재 없이 변하고 새로운 현안이 주어진다. 그래서 간간이 나누는 즉석 대화, 스탠딩 회의는 효율적이다. 프로세스를 간결히 확인하고 빠르게 의견 교환한다. 지금 사진 속 직원들은 어떤 해결 가닥을 잡고 있는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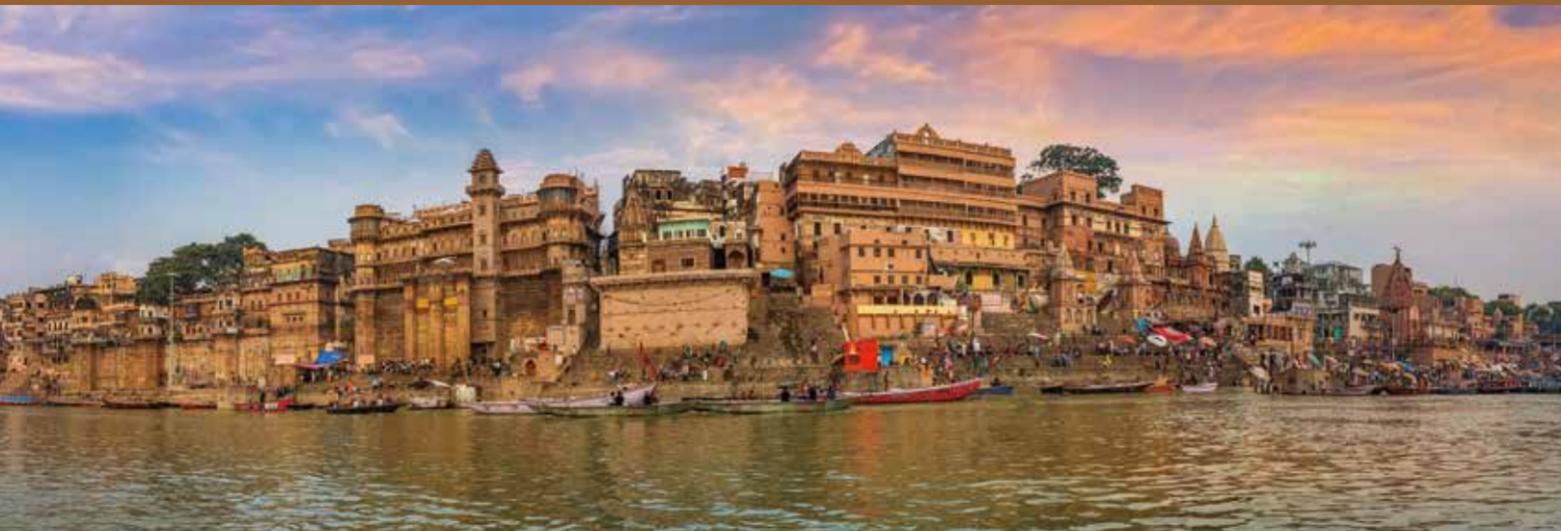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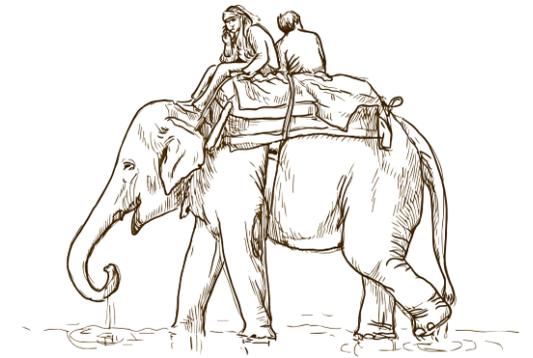
마스크 착용으로 최근 깨달은 사실. 얼굴의 드러난 30퍼센트는 대체로 누구든 아름답다. 결국 美를 결정하는 것은 코, 입, 볼, 턱의 전체적 균형과 조화이다. 또 사람을 식별할 때 우리는 간혹 목소리, 청문(聽紋)에 의존한다. 상대의 눈만 보고 알아볼 수 없을 때 그녀의 음성을 듣고 알아본다. 사진 속 인물은 옅은 베이지 티셔츠, 하얀 헝겊 천 시계 줄, 3M 포스트잇과 볼펜을 손에 들었다. 한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리는 찰라 셔터가 움직였다. 이 주인공은 전체 얼굴이 평소 잘 그려지지 않을 정도로 늘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고 있었다.

사진 속 주인공을 아시는 분은 [sky03tree@kepco-enc.com](mailto:sky03tree@kepco-enc.com)으로 10월 5일까지 정답 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다섯분께 커피 쿠폰(일만원)을 제공합니다.

#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싶은 인디아

Writer 전혜선 디지털엔지니어링실 차장

# India



세계에서 두 번째 사람이 많이 사는 나라, 최근 코로나로 하루 4,000명씩 죽는 나라. 인도여행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힘들다. 이게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없는 냄새와 세상의 모든 나쁜 것들은 가지고 있을 법한 텁텁한 공기. 단 1초도 기다릴 수 없는지 실새 없이 여기저기 뺑뺑대는 경적. 아무리 피해서 걸어보려 하지만 결국 밟고 다닐 수밖에 없는 소똥, 낙타똥, 돼지똥, 개똥, 사람똥. 눈이 뚱그란 사람들의 무서운 눈빛. 인도는 오감을 힘들게 한다.

이곳에 왜 오려고 했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질 정도로 여행 아닌 고행이다. 당장 다음 비행기로 돌아가야겠다. 하루 지나면 더 힘들다. 인도에 왔으니 그래도 카레는 먹고 가야지 식당에 들어가지만 모든 메뉴가 카레다. 북북북으로 주문하지만 향신료 맛이 강해 한 입만 먹고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카레도 많고, 먹을 만하네 하고 먹긴 했는데, 먹고 나서 배가 아픈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럭저럭 뉴델리 도시에는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가 있지만 카레랑 맛이 크게 다르지 않다. 잘 먹지도 못하니 여행은 더욱 힘들어진다.

몸의 감각이 한계치에 도달할 때쯤, 몸이 조금씩 적응할 때쯤, 비로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상하게 모두 행복해 보인다. 길에 누워 자는 사람, 기차 지붕 위에 위험하게 올라탄 사람, 천연스레 구걸하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은 가진 것이 많지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거의 본 적 없다. 그 이유를 생각하며 바라나시에 도착하였다. 갠지스강을 보는 곳으로 필수코스다.

정말 강물로 목욕하고 빨래 할까? “한다!” 정말 강물을 마실까? “마신다!” 갠지스 강가에는 기원전부터 한 번도 불꽃이 꺼지지 않았다는 유명한 화장터가 있다. 항상 대어섯 구의 시체가 타고 있고, 고기 타는 냄새가 난다. 이게 사람 냄새다. 살이 타는 냄새다. 개들이 그



주위에서 쿵쿵거린다. 소들은 따뜻한지 불을 찌고 있다. 다 타버리면, 갠지스강에 흘러보낸다. 그 강물이 흘러 내려가는 멀지 않은 장소에서 빨래, 목욕 하고 물을 마신다. 관광객들은 그 모습을 지켜 보고 있다. 처음엔 죽은 사람 앞에서 이게 무슨 경건하지 못한 짓인가 생각이 들지만, 쉽게 그 자리를 뗄 수 없고 두세 시간 사람 타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 경건해지고 진지해진다. 사람이 죽어 재가 되어 강물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 불 속에서 타고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 하면서 그 동안 힘들었던 모든 것도 같이 불에 타고 물에 씻겨 없어진다.

인도에서 보통 기차 타고 오랜 시간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여행을 10일 정도 한다면 2, 3박 기차에서 잠을 잔다. 덜컹덜컹, 출다가 모래바람이 들어 오기도 했다.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자는 동안 마는 동안 어느덧 창문으로 아침햇살이 들어온다. “짜이~ 짜이~” 하는 소리가 잠을 깨운다. 짜이는 짜이 차와 우유, 설탕 등을 함께 끓인 국민 음료이다. 처음 호기심에 한 잔 마셔보면 믹스 커피에 중독되듯이 어느덧 중독된다. 짜이 끓이는 주전자나, 짜이 파는 사람 손이나, 짜이 담는 보온병이나 절대 청결해 보이지 않는다. 그게 짜이 맛의 비결이 아닐까? 인도 여행 한 사람은 꼭 한 번씩 짜이를 집에서 만들어본다. 아무리 재료와 방법을 바꾸어 보아도 본래의 짜이 맛은 나지 않는다. 인도라는 곳이 바로 짜이의 비밀 레시피이다. 내가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내가 죽고 싶은 곳은 바로 인도이다. 조금은 극한의 여행지로 인도를 추천해본다.



# 더글라스 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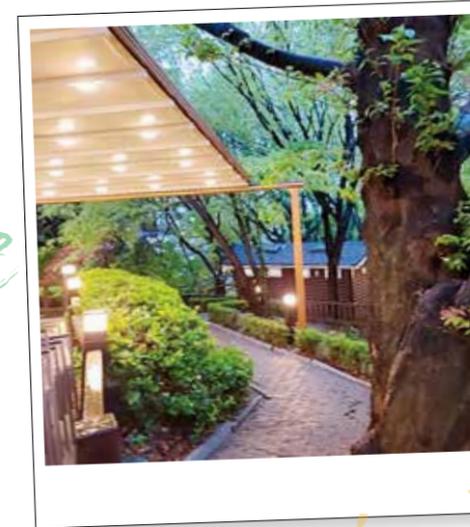
Writer 박은혜 전기계축기술실 대리

# Walkerhill Douglas House

코로나로 심신이 힘들어 한 번쯤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은 날, 조용히 책 읽거나 생각하기 좋은 호텔 "더글라스 하우스" 소개한다. 호텔에 사람이 바글바글하면 당장 거부감이나 불안감부터 드는 요즘 시크릿한 별장을 빌려서 혼자 쉬러 오고 싶을 때, 캠핑을 떠나고 싶지만 장비 챙기고 준비하기 힘들 때, 누군가랑 만나서 얘기하고 모임 하기 조심스러운 요즘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커피 한잔하면서 산책도 즐기는, 서울에서 이동도 가깝고 캠핑 느낌도 나는 이유에서 선택, 방문하였다. 단, 이곳은 조용한 분위기를 위해 노 키즈 존(No Kids Zone)이니 아이 동반한 분들은 비스타 워커히어나 그랜드 워커히를 이용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체크인 하러 가는 길, 그랜드 워커히에서 셔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다. 걸으면 15분~20분 정도 걷는 거리인지만 피톤치드 느끼며 걷고 싶은 사람들은 걸어와도 될 정도의 거리이긴하다. 호텔이라 하기에 아담한 느낌도 있고 푸릇푸릇 산속에 위치한 느낌은 마치 별장에 온 느낌이 들었다.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오래 살아도 참 모르는 곳이 많았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 블로그에서 서울이지만 서울 아닌 곳 같다는 표현이 참 많았는데 직접 방문해보니 그 말의 속뜻이 뭔지 알것 같았다.

체크인하고 라운지는 투숙객 모두에게 무료로 이용하였는데, 마침 내가 간 날은 비도 내리는 한강 운치와 나무숲을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었다. 라운지에는 간단한 쿠키랑 커피가 있고 커피는 풀바셋 커피라 맛이 특히 좋았다.



camping)

수요 미식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피자집으로도 소개된 워커히의 소개팅 명소라고 불리는 '피자힐', 처음에는 비싼 가격에 놀라 이 돈 주고 피자 맛이 얼마나 있길래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풍경보니 뷰(View)맛집이라 이 가격에 피자도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호텔 내 모든 음식점에는 코로나로 테이크 아웃해서 먹을 수 있고 현장에서 식사도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우리는 테이크 아웃해서 객실에서 먹기로 했다. 객실까지 산 공기를 느끼며 걸어왔는데 피자가 식지도 않고 치즈도 많이 들어간 맛이 일품이었다. 단품으로 가격이 비싸니 객실 패키지에 포함된 것을 구매하여 맛보기를 추천 드린다. 스카이워드라고 한강을 바라보며 족욕을 즐기는 시설이 있는데 이 역시 이용하면서 행복함을 느꼈다. 따뜻한 물에 풍당풍당 발을 담그며 가벼운 수다를 떨며 한강 야경을 바라보고 경치와 바람을 느끼는 생각 이상의 힐링을 할 수 있다.

코로나로 피곤한 만큼 정말 별것 아닌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하루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 때리며 경치 구경하면서 맛있는 요리 먹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값진 행복이란 걸 느꼈다. 소소한 하루 시간을 좋아하는 선물 받는 듯한 느낌이 든다. 서울이면서도 서울 아닌 것 같은 기분을 한 번 경험해 보시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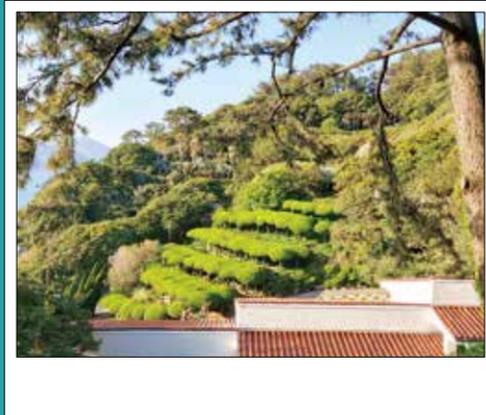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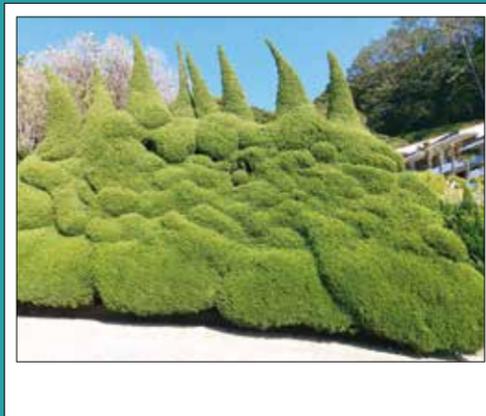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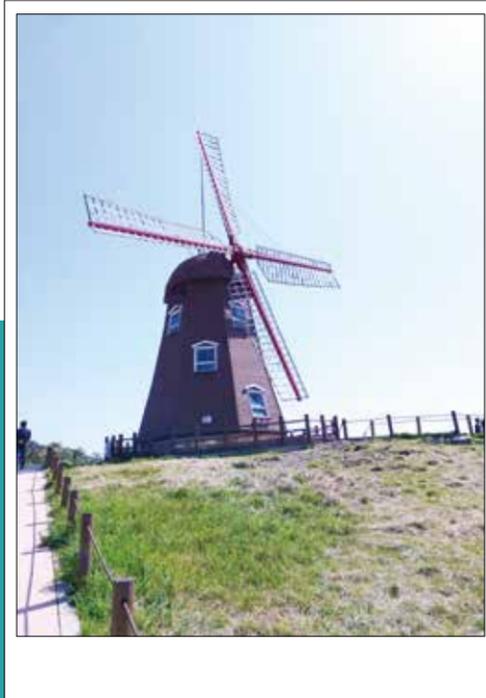
# 거제도 외도 보타니아

Writer 송재철 토건환경기술실 부장

# Rotania

부산까지 비행기 2만원 내 티켓팅 하는 곳을 찾아 한려해상공원으로, 풍경 좋은 거제로 향했다. 다다익선이 아닌 한두 곳 여유롭게 즐기기로 낙점한 곳이 바로 외도 보타니아. 배타고 들어가는 예쁜 섬이다. 배를 기다리는 중, 근처 '바람의 언덕'으로 올랐다. 언덕에 풍차가 있어 사진찍고 영화 주인공이 된 듯한 분위기를 느꼈다. 드라마 회전목마(2004년), 영화 종려나무 숲(2005년), 1박2일 촬영지로 유명하다.

출발~ 선장의 맛깔나는 안내 방송을 들으며 십자동굴 신랑바위, 해골동굴, 사자바위를 보고, 뱃전 부딪치는 파도를 온몸으로 맞아 보는 기쁨도 누렸다. 희귀 아열대 식물 740여종 1년 내내 꽃 지지 않는 곳으로, 지중해 해변을 옮겨 온 듯 이국적 건물과 조경이었다. 2시간 산책 코스 가는 곳마다 '예쁘다, 정성이 가득하다' 감탄이 터진 곳이다. '겨울연가' 마지막 촬영지였다. 눈이 호사를 누렸으니 입도 즐겁게~ 돌아 오는 길, 부산 '해운대 기와집 대구탕' 식당에 들렸다. 감히 이 정도 순백의 맛을 맛 본 적이 없었다. 마지막 '부산 보트 야경관람'은 해운대 바다에서 폭죽과 사진 촬영, 그리고 광안대교를 바라보며 해외여행 보다 그래도 '우리 것이 좋은 것이어~'



# 강진 일주일 살기

FU-SO체험

Writer 백종만 기계설계그룹 처장

# Gangjin



인터넷을 통해 현지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알고 5월 초 '강진 일주일 살기' FU-SO(Feeling Up-Stress Off)체험을 다녀왔다.

강진은 영랑권, 청자권, 다산권, 하멜권으로 구분한다. 영랑권은 영랑생가, 사의재와 모란공원, 청자권은 도자기와 민화 체험, 가우도섬을 잇는 2개 출렁다리와 섬 돌레 트래킹 및 짚트랙을 탈 수 있고, 다산권은 정약용 선생의 다산초당, 다산 박물관과 석문공원의 구름다리, 하멜권은 병영성, 하멜 기념관과 네덜란드식 담장길을 볼 수 있다.

내가 머문 푸소 농가는 하멜권 월출산 자락의 달빛 한옥마을이며 무위사와 호남 3대 정원(담양 소재원, 보길도 부용동 정원, 강진 백운동 정원)중 하나와 가깝다. 강진다원과 경포대 등도 근처에 있다. 강릉 경포대와 같은 이름이지만 가운데 포가 浦가 아닌 布로서 '계곡에 달그림자가 아름답게 비추인다.'는 의미이다. 월출산 북쪽은 영암, 남쪽은 강진이며 영암에서 보면 바위산이지만 강진에서 보면 제법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경포대 계곡 흐르는 물소리가 시원하다. 한정식이 유명하여 전라도 음식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금상첨화이다. 강진 가까이 해남, 완도, 신안의 해수욕장과 섬들도 쉽게 갈 수 있다.



# Feeling Up



## Beautiful Watch

# 시간을 보는 안목

### 강봉주 차장의 시계수집



심미적 만족감을 주는 시계,  
Breguet - Tradition Ref.7057



나의 Casual & Field Watch,  
Nomos - Club Neomatik Atlantic



해외에서 유용한 시계  
Vacheron Constantin - Overseas Dual Time

수집이라는 취미. 유년 시절에는 소소한 우표나 피규어 수집에 그치지만 성장하면서 자기 취향을 반영하여 운동화, 이어폰, 카메라 등에 관심을 가진다. 이후 골프, 캠핑, 낚시, 등산 등 여가활동을 위한 장비 구입 혹은 와인, 자동차, 오디오, 시계 같은 세계로 접어든다. 자동차와 오디오와 같이 시계 컬렉션은 비용과 중독 측면에서 조금 위험한 취미이다. 시계는 싫증이 나지 않고 종류가 다양해 기추(추가 구입) 욕구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시계는 소수 매니아의 전유물로 보인다. 그래도 디지털이 아닌 초침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아날로그 시계를 귀하게 여기고 동경한다. 예물 시계 판매로 35% 이상을 점유하는 문화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엄밀히 시계를 꾸준히 늘려가며 소장하는 수집가는 아니다. 일단 경제적 여유도 부족하고 시계 역사나 무브먼트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 빈약하다. 경험상 시계가 6~7개가 넘어가면 싫증 나는 모델이 생겨 한 번씩 라인업을 변경한다. 현재는 기능과 유형별로 알짜배기 단 1개씩의 시계만 가지려 빌드업 중이다. 물론 그게 몇 개가 될지 모른다.

기계식 시계는 자동 오토매틱 시계와 수동시계로 나뉜다. 전자식 시계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쿼츠 시계로 카시오 G-Shock 같은 모델이 대표적이다. 오토매틱 시계는 무브먼트에 로터라는 회전추가 달려 착용만으로 작동 에너지를 갖는 시계를 말한다.

어릴 때 아버지는 일본 출장을 가시면 전자제품을 사오셨는데 그중 시계도 하나였다. 일본산 전자시계를 요리조리 만져보는 관심은 그 때부터 있었다. 본격적으로 기계식 시계에 관심을 가진 지는 십여 년 정도 된다. “대리가 되어서 제대로 정장 시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 첫 득템을 위한 전형적 자기 합리화 논리에서 비롯된 취미가 이렇게 커질 줄이야. 덕분에 많은 시계를 경험했다. 바쉐론 콘스탄틴, 오데마피게, 브레게, 예거르쿨트르, 블랑팡, 로저드뷔, 위블로 등등. 유명인이 잘 법한, 한글로 읽기도 어려운 낯선 이름들이다.

반면, 수동시계는 시계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멈추는 시계로 크라운을 돌려 밥을 주는 시계이다. 작동 에너지의 잔량을 나타내는 Power Reserve Indicator가 표시된 시계가 실용적이다.

일반인에게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스마트폰이 있는데 거추장스럽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시계는 그 자체로 TPO(Time, Place, Occasion)에 맞추어 패션을 완성하는 액세서리 포인트이고 처음 만나는 사람의 취향과 안목까지 유추하는 숨겨진 아이템이다. 넥타이나 구두에 신경 쓰는 멋쟁이라면 시계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실용적 기능의 스마트워치가 보편화되어 기계식

오토매틱 방식은 로터가 추가되어 두께가 두꺼워지는 단점이 있으나 날짜 표시, 방수 등 기본기능을 추가하기 적합하고 그만큼 시계 안정성이 좋은 편이다. 그래서 롤렉스, 오메가부터 최고급 파텍 필립 노틸러스, 오데마 피게 로얄 오크 등 대부분 스포츠시계는 오토매틱 방식을 채택한다.

수동방식 시계는 상대적 얇은 두께로 정장(正裝)에 적합한 방식이다. 다양한 기능보다 디자인의 심플한 만족감을 준다. 다만, 수동시계에 크로노그래프 기능 하나만 추가해도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그런 시계는 기술력과 심미적 완성도를 과시하는 플래그십 모델에 자사의 무브먼트를 넣은 제품들이다.

샤넬 명품처럼 시계를 재테크 수단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좋은 시계는 보증서, 고유 시리얼 넘버가 있어 이력 관리가 비교적 확실한 편이다. 더군다나 인기 모델일 경우 언제나 수요가 있어 환금성은 미술품보다 좋고 골드바처럼 번거롭지 않으면서도 항상 사용하기에 그레이 마켓에서 정가 대비 2배 웃돈이 붙은 모델도 있다(프리미엄 모델).

일례로 세계 3대 시계 제조사 오데마피제의 로얄 오크 라인업 중 '점보 jumbo'라 불리는 Extra Thin Selfwinding 모델이 있는데, 매장가는 3천만원대 이지만 그레이 마켓 중고 가격은 1억원에 육박한다. 그렇다고 골드 케이스나 다이아몬드가 붙은 시계는 아니다. 신품을 구하기 어려운 기이한 현상 때문이다.

실물 가치 상승으로 최근 시계 시장에서 인기 모델 가격은 급상승 하였다. 나의 취향과 고가 시계를 선택하지 않은 성향 탓에 다양한 시계를 경험하면서 금전적 손해를 보았다. 그 덕분에 돈 되는 시계와 기술적으로 좋은 시계, 그 두 요소를 충족하지만 저평가 우량주

같은 시계 보는 안목을 얻었다. 시계는 "오늘이 가장 싸다."는 쓰라린 교훈도 얻었다.

"가장 좋은 시계는 무엇이나?" 웬만한 자동차보다 비싸고 발음도 힘든 시계들일까. 그런 종류는 안드로메다급 천상계의 시계는 맞다. 가장 좋은 시계는 늘 함께하며 자신만의 취향이 녹아든 시계이다. 나의 최고 시계는 대학 1학년 첫 과외 알바비를 받자마자 샀던 15만원짜리 메탈시계였다. 무려 8년 동안 차며 느낀 만족감이 이후 구매한 어떤 비싼 시계보다 더 큰 만족을 주었다.

정장, 스포츠, 야외, 잠수, 항공, 다용도, 복합용 시계는 용도와 기능 따라 종류가 많기에 갖고 싶은 시계는 아직 많다. 실제로 비싼 시계를 구입할 때 조금 위안을 얻으려 이렇게 다짐한다. "나는 비싼 시계를 산 게 아니야. 시간을 비싸게 산 거야. 시간을 비싸게 샀으니 주어진 시간을 더 값지게 살아야 해." 그럼에도 현실의 나는 오늘도 해외 시계 칼럼을 뒤지고 신상품을 검색한다. 간혹 소장한 시계를 하나씩 꺼내 요리조리 루페를 들이댄다. 시간을 보는 안목, 그 길을 성취하기는 참 멀고도 험하다.



### <강봉주 차장의 이야기에 곁들이는 또 다른 시계 이야기>

- By 이태운 부장 -



시계가 '시간을 알려주는 물건'으로서의 효용은 이미 사라졌다. 시계의 견고성, 방수성, 정확성도 별로 큰 의미가 없다. 롤렉스 서브 마리너 시계를 차고 수심 200m 이하로 내려가 정말 방수가 되나 확인할 사람은 없다는 의미이다. 시계는 인간 몸에 밀착한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기계라 생각한다. 이 작은 기계의 정밀성은 하나의 완전한 세계를 표방한다. 아름다운 시계를 보면 한편의 詩와 같은, 시적 이미지, 시적 착상이 떠오른다. 시계가 불러일으키는 이런 Poem 때문에, 시계 차는 사람은 시계의 심상과 자신을 일체화하는 무의식을 가진다.

이는 자기 몸에 문신을 새기고 그 문신을 바라보면서 어떤 힘을 얻는 주술성이다. 예를 들어 등산 갈 때 필드 또는 밀리터리 시계를 차면 발이 한층 가벼운 힘을 받는다. 또 뛰어난 야광성은 캄캄한 산속에서도 빛날 거란 믿음이 생긴다. 파티에 참석할 때 드레스 코드와 어울리는 시계를 차면 자신이 생각하는 '멋'을 여기에 투영하고 그 이미지에 따라 태도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클래식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시계, 항공 파일럿의 다양성과 정확성을 추구하는 시계, 베젤이 확확 돌아가는 굳건한 다이버 시계, 달의 미려한 상징을 세련되게 보여주는 Moon시계 등의 장르가 생겨났다. 당신은 어떤 세계를 지향하는가?

시계 수집은 일종의 기기병에 속하기에 주로 남자들이 열광한다. 남성이 유일하게 누리는 사치스런 장난감이다. 그러나 미적 디자인과 시계가 발산하는 Poem에 심취한다면 싸고 좋은 시계도 많다. 러시아, 영국, 독일, 미국, 중국, 한국의 중소 제작자들이 만드는 시계는 10

만-30만대로 나름 독창적 디자인 세계를 추구한다. 현실적으로 카시오, 세이코, 시티즌, 타이맥스도 가격대 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시계 속에 여러 계기판을 포함한 크로노그래프 타입에 대해서 애호가에게 실제로 판독하는지 물었더니 계기판과 바늘이 작아 거의 보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양한 기능과 멋에 대한 취향으로 이를 선호하는 분도 많다. 복잡한 구성을 기피하는 쪽은 미니멀리즘 계열이다. 노안 가진 사람은 시각성을 중시하기에 대개 시계 사이즈가 크고 묵직하며 바늘과 표지판이 선명한 걸 좋아한다. 시계에 따라 백판, 흑판, 청판이 주는 디자인적 색깔이 모두 다르다. 녹판(綠板)은 고귀한 매혹을 발산한다. 흑판 바탕에 하얀 시간 표시, 뚜렷한 야광을 좋아한다.

오토매틱 시계 후면을 투명하게 처리하여 작은 로터가 삭-삭-삭 돌아가는 추의 움직임과 작은 톱니, 나사의 세계를 들여다보기 좋아한다. 시계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감을 느낀다. 문제는 토, 일요일 시계를 벗어 놓으면 굶어 죽어 있다. 용두를 돌려 시간을 다시 세팅하려면 부지런해야 한다. 요즘 시계는 스마트폰 앱과 동기화한 것도 있다. 해외 여행가면 라디오 전파를 수신받아 현지 시간으로 스스로 세팅이 되는 시계도 있다. 마법처럼 시계 바늘이 빙글빙글 움직인다.

가장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세슘시계와 연동되는 PC시계와 스마트폰 시계 앱이다. 어떤 최고급 초정밀 시계보다 정확하다. 그럼에도 시계에 대한 동경, 환상은 지속된다.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사물의 용도보다 그 작은 몸체가 빛어내는 상징적 이미지로 바뀌었다. 다이빙하지 않는 사람이 다이버 시계를, 비행기 파일럿이 아닌 사람이 항공 시계를 차는 게 그 증거이다. E&C

# 권태명 조경반장

## “인생 V를 그로이다”



척박한 산 돌 틈 사이 소나무는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려 뿌리를 가지 마냥 아래로 훌뜨리고 뻗치며 지면 위로 자기 속을 거칠게 노출한다. 손마디가 소나무 웅이 마디같이 굵고 등글게 뭉쳐진 그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삶의 흔적이자 증표이다. 출퇴근 길 회사 주변에서 잡초를 제거하는 아낙들도, 사철 바뀌는 붉고 푸른 꽃을 보면서 회사를 다닌다. 그게 누구 솜씨인지 모른 채로. 그 주인공 권태명 조경반장을 만났다. 연분홍 부채꽃 살랑거리는 자귀나무, 붉은 꽃이 화사한 배롱나무 허리를 만지는 매끈한 촉감을 좋아 하지만 조경사 권 반장은 소나무 전문가이다.

한 시간 남짓 대화로 인생 소묘가 어불성설이자 고역인지라 무턱대고 내력까지부터 하였다. 권 반장의 반경은 상주 고향, 구미 집, 김천 근무로 델타를 그리며 사셨다. 상주시절은 잘 나갔다. 크게 비닐하우스 4동을 짓고 금잔화, 사루비아를 길러 대박을 터뜨렸다. 그의 성실과 올곧은 성품을 눈여겨 본 당시 최재영 군수는 영농 재주꾼으로 원예와 조경도 세계적 안목을 길러라고 권 반장에게 일본, 호주, 뉴질랜드, 중국, 타이완 등 7번의 해외연수를 주선해 주었다. 어떤 길목에서 어긋났는지 모르지만 인생 지사 모든 게 꿈같고 물거품같은 일이라 한바탕 용기 내어 크게 돌아보았다고 요약하자.

강전지, 약전지 원리를 여기서는 제외하고, 소나무 전지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단도직입으로 들어갔다. “그게 말이지요. 솔가지마다 V자형을 보아가며 섬세히 공들여야 하니 무척 힘들지요. 소나무 전체 모양을 마음 속에 그려 가며 작업해야지 부분만



신경 쓰면 안되는기라에. 소나무도 적송, 반송, 육송.....” 그의 설명이 이어졌다.

권 반장은 “분을 분담게 뜬다.”는 부분에서 입술에 지긋이 힘을 주었다. 소나무 옮겨 심을 때 몸살을 앓는데 뿌리를 동그랗게 감싼 곳 그곳 활착을 순조롭게 하려면 지켜야 할 원칙이 참 많다. 또 소나무 근처 잔디를 심으면 좋지 않다. 예초기가 돌면서 미세수관에 상처를 내기 때문이다. 말이 나온즉 혁신도시 가로수 절반이 사망한 이유가 궁금하였다. “그게 도시를 설계하고 기초공사 할 때 생존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탓이에요. 그걸 지자체가 주관하지 않으니 김천시청 잘못은 아이러에.” 나무는 배수가 잘되고 뿌리 활착만 되면 여간 죽지 않는다. 회사 조경수도 세상을 많이 떠났다. 떠난 기별을 알아보니 본래 사육 이전 토지가 물이 고인 늪, 웅덩이 부지가 있었고 이걸 마사토로 메우다 보니 흙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곳이 있었다.

똑같은 레서피로 요리하더라도 손맛 따라, 비방 따라 어떤 미세한 차이가 맛의 품격을 가른다. 예초, 전지, 관수, 농약 살포, 유관공(뿌리가 숨을 쉬도록 땅에 묻는 파이프)에 관한 해결책을 권 반장은 붓물 터지듯 내어놓았는데 조금 비책에 가깝게 들린다. 나무 농약의 희석 배합 비율과 농도는 아무에게도 일러 주지 않는 비밀에 속한다. 한때 동물성 비료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었다. 그래서 양분을 모두 바꾸었다. 그 중 조경사가 일러주는 천연비료 만드는 공식과 재료를 내가 받아 적는다고 될 일은 아닌 듯하다. 결국 비장(脾臟)은 비장(秘藏)의 일이 따로있다.

권 반장은 구미대학 조경학과를 졸업한 조경자격자다. 가톨릭 신자로 안토니오라는 세례명을, 주말마다 산을 찾는 산악인이다. 슬하에 1남1녀를 두었다. 딸은 5년전 출가하여 경기도청의료원 수간호사로 근무한다. 권 반장의 꿈을 물었다. 전국각지 수목원과 산림원 안 다녀 본 곳은 없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뒤용방 옹기정원을 한 번 꼭 가보라 권한다. 이런 꿈을 야재들끼리는 ‘왕국’이라 부르는데, 반장은 의구한 산천을 휘돌아보았기에 앞으로 거창 쪽 임야를 사서 거기다 아름다운 정원, 어여쁜 소나무, 장독 인테리어를 두고 낙원을 꾸밀 생각이다.

계절마다 회사 주변에서 금잔화(매리골드), 새싹 보리, 꽃양배추, 페추니아, 국화를 번갈아 가며 구경한다. 눈은 즐겁지만 누군가 정성과 수고를 들인 생물이다. 마지막 질문, 사육 3층 도라지를 왜 심어놓았는지 물었다. 그것은 조경반 직원이 심지 않았고 그걸 제거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직원 누군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심어놓았을까? 그 마음을 헤아려 보다가 그냥 두었어요.” 누구는 썩 뽑아 버렸을 터인데 아무래도 꽃과 나무를 보는 간발의 마음 차이 같다. 자두, 복숭아 같은 유실수와 정원에 심는 관상수에 대해서 간혹 직원에게 자문을 주시는데 꽃나무에 관해 궁금하신 분은 문의하시기 바란다.

나이 들면 질박한 마음으로 나무, 꽃, 돌에 왓지 눈이 더 간다. 노자는 ‘그 뿌리로 돌아가는 고요함’, 귀근(歸根)을 말했다. 나무 앞 새와 가지는 무성하더라도 그걸 있게 한 뿌리는 하나,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E&C



# 전기 없이 살 수 있을까

Writer 권은중 시인

어느 시절에나 사람 곁에 불빛은 있었다  
 작은 불빛도 때로는 하나의 희망이었다  
 2차세계대전, 흑한 속에 밤을 새우던 병사들  
 깜깜함 방에서 자던 병사들은 모두 죽었으나  
 촛불 하나 켜진 방의 병사들은 살아남았단다  
 그 많던 등잔불, 남포등\*은 다 어디로 갔을까

태양에서, 원자력, 석탄, 석유에서, 인간은  
 전기 만들고 불빛을 만들어 오늘을 산다

양지 바른 언덕에 햇살을 받으면  
 빛이 얼마나 따뜻한지 느껴진다.  
 빛에도 마음이 있다면 엄마의 마음일 것 같다  
 빛은 직선으로 걷기에 그림자를 낳는다  
 우리에게 전기가 없다면 어떨까  
 전기 없이, 빛 없이는  
 포근한 침대도, 식품냉장고 쓸모없을 것이다.  
 깊은 밤, 당신의 눈망울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남포 : 석유를 원료로 하고 유리 등피를 씌워서 쓰는 서양식 등잔(Lamp)

# 잔돈에 강하고 큰돈에 약한

“잔돈에 강하고 큰돈에 약한 현상”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시장에서 콩나물 오백 원 깎거나 고등어 가격이 오르면 민감한데, 반대로 대형 TV, 자동차, 부동산 같은 고가에는 둔감해진다. 그 까닭은 생활에서 매일 접하고 가격대를 머릿속에서 짐작하며 비싸다, 싸다고 느낀다. 항공 티켓, 고급가구는 자주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기에 마음속에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10만원, 100만원은 예민한데 사람들은 왜 1,000만원, 1억원에는 둔감해지는 걸까?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게 생리이듯, 잔돈에 연연함은 본능에 가깝다. 오르는 주식은 겁나고 내리는 주식은 싸게 보여 저점매수를 선호하는 게 사람 마음이다. 자기가 사고 싶은 주식은 늘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 같아 꼭 동전주(잡주, Penny Stocks)를 건든다. 동전주는 하루 200%, 300%까지 급등하는 것도 있다. 그런 잡주만 10종목 골라 테스트해 보면 1종목이라도 크게 오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란 걸 알 수 있다. 주식이 떨어지면 물타기는 쉬워도 그 반대로 불타기는 힘들다. 마음은 이익보다 손실을 더 뼈아프게 느낀다. 떨어지는 주식을 팔고 오르는 주식에 태워 올리려는데 도저히 손이 나가지 않는다. 결국 올라가는 놈을 팔고 내려가는 놈을 구원하려는 습관대로 움직인다. 이게 게임의 룰이다. 비싸게 보이더라도 좋은 주식을 사서 일정 수익을 꾸준히 올리는 방법이 오히려 마음 편한데도.

주식은 1년 노력하여도 오백만 원 벌기 힘이 든다. 부동산은 주식보다 덩치가 수백 배다. 금액이 높은 만큼 선택을 잘해야 하는데 또 이게 잘 안된다. 거액에 투자할수록 판단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몇 마디 말을 듣고서 “그런가 보다.” 선택 사기도 하고, 아무 업체나 시공사를 잡아 건설을 맡기기도 하고, 부동산 경매에서 시가보다 입찰금액을 높게 적고 낙찰받았다고 좋아한다. 운이 따르면 좋지만 흥이 덮어지면 상처가 깊다. 결국 부자는 큰돈에 강하고 잔돈에 별 비중을 두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이런 잔돈 본능을 극복할 수 있을까?

**첫째. 경험치가 쌓여야 가격이 보이고 적절한 판단이 가능하다.** 자신이 투자하는 분야에 계속 발을 담고 이런저런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좋고 나쁨의 기준이 생겨난다. “그것이 비싼지 싼지 모르겠다.”는 감이 없다는 증거이다. 이럴 때 가격은 단지 숫자로 보인다. 자동차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 본네트를 열어보았는데, 옆에서 왜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하라고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대답과 같다. 평상시 관심을 기울이며 공부해 보자.

**둘째. 스스로 판단하지 못할 때 아무것이나 의존하는 습관을 피한다.** 큰 이익과 손실이 오고 가는 시점에서 자기 결정에 확신이 없으면 아무 말도 설득당하고 또 자신이 책임지기도 싫어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즉 회피기동이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걸 ‘운’에 돌려 버린다. 가까운 지인이나 전문가 한 두 마디 말을 듣고 덜컥 사버리는 ‘묻지마 투자’를 실제로 많이 한다. 또 장고 끝에 약속 난다는 식으로 고민에 제풀 지치면 운에 맡기고 바로 결행하기도 한다. 적극적 대응보다는 한 템포 쉬거나 잘 모를 때 포기하면 마음 고생을 덜 수 있다.

**셋째. 리스크 위험에는 감내하는 수준을 미리 정한다.** 간이 비대한 사람은 투자를 하면 절대 안된다. 몰빵하여 원금을 날려도 끄덕없는 사람도 있다. 반대로 조금만 손실 입어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새가슴도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이 60% 오른다고 가정하면 10% 이익만 보고 얼른 파는 사람, 30%에 만족하고 차액 실현하는 사람, 50%까지 들고 ‘Go’하는 사람, 이는 그 사람 간의 크기에 비례한다. 보통 사람은 소심증 환자이다. 괜히 가격 따라 가슴이 출렁거린다. 사술의 강도는 가장 약한 고리가 결정하기에 스스로 단련하여 약간 둔감화(desensitization) 시키는 것도 일종의 훈련이다. 이는 자기가 견디는 범위를 정하는 일이다.

노트북 PC를 사기 위해 며칠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보내고 CPU와 램 그리고 그래픽카드의 스펙을 연구하고 사용자 후기를 낱알이 읽는다. 유튜브 추천 동영상도 검색한다. 이런 과정을 취미로 즐기면 후회는 없겠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 큰돈이 투입되는 판단과 결정에서 보통 사람은 수고와 노력을 그만큼 들이지 않는다. 부자는 인간 본능과 역행하는 역발상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투자 습관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고 때로는 본능과 반대로 움직여라. **E&C**

# 뉴랩, 순한 양의 부드러움



## NEW LAMB

터키어로 '쉬쉬'는 고기를 꼬치에 야채와 곁들여 끼워 굽는다는 뜻으로 빵과 함께 먹으면 '쉬쉬게밥'이다. 매캐한 공해 냄새가 감도는 베이징의 겨울 밤, 어둑해지면 양고기 꼬치구이 길거리 노점상이 하나, 둘 나온다. 자세히 보면 여타 중국인과 생김이 조금 다른 신장-위구르 사람들로 중동인의 이목구비를 하고 있다. 양은 아무래도 초원 스텝의 번제(燔祭)와 연관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양구이로 유명한데 주로 T-born 형태로 훈연한 스테이크가 맛있다. 여기에 가리비 관자와 알감자를 버터에 굽고 삶은 홍합과 곁들여 먹는다. 더불어 레몬즙을 뿌린 생굴도 풍성하게 얹어준다.



평소 우리 직원 주문대로 상을 차려달라 하였더니 핑크 솔트 양갈비, 공심채 볶음, 양고기 볶음밥(옥수수 온면도 인기)이 나왔다. 공심채(空心菜)는 한자 그대로 줄기 속이 빈 채소이다. 주인이 영어로 'morning glory'라고 한데 왜 나팔꽃 조금 의아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공심채는 'water spinach(물 시금치)'가 일반적이지만 필리핀에는 모닝 글로리로도 부른다. 공심채 볶음은 구운 양과 곁들이는 별찬이다. 트러플(송로버섯) 양갈비는 송로버섯을 양고기에 재어나오나 상상했는데 구운 양을 트러플 오일과 파우더에 찍어 먹는 일종의 드레싱이다. 과거 중국식 양꼬치구이 레스토랑을 몇 군데 갔다가 양의 특유한 냄새에 놀려 포기한 적이 있다. 뉴랩의 양구이는 역한 내가 전혀 없다. 우문현답이지만 비결을 물었더니 "육질이 나쁘고 싼 냉동육에는 그게 섞여 나온다." 달리 뉴랩은 엄선한 식재료만 사용한다는 뜻이다. 뉴랩의 양고기 맛은 부드럽고 고소한 감칠맛이다. 참고로 양고기 누린내는 양의 나이에 비례하기에 어린 양일수록 냄새가 없다.

양구이 하면 터키 여행이 생각난다. 전통시장에서 체리를 한 바구니 매일 사서(무척 달고 싸다) 계속 먹었다. 초록 올리브 열매는 쓰고 신맛이 강하지만 검정 올리브 열매(오랜 발효)는 씹을수록 고소하다. 쉬쉬 요리는 본래 야외음식이기에 양고기와 야채, 더불어화로 숯불을 직접 가져와 현장 요리를 따로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사람이 집착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방편으로 물릴 때까지 실컷 해보는 것이다. 마음껏 먹으면 마음이 비로소 끈을 풀어준다. 터키에서 체리, 올리브, 양고기 이 셋을 원 없이 배로 채워 보았다.

구운 양을 살짝 찍어 먹는 붉은 가루 정체는 무엇인가? "초란이예요." 주인장이 주방으로 달려가 가는 씨앗이 담긴 병을 보여준다. 그걸 볶아 가루로 만들면 향신료로 변한다. 아담한 체구에 영민한 인상으로 날렵히 움직이는 여주인은 놀랍게도 중국인이다. 완벽한 한국어에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이름은 리메이젠(李美娟), 파찰음의 '젠'으로 들렸다. 그녀는 지린성 출신으로 한 때 한국 유학생이었다. 내력이 조금 이상하게 들렸지만 지린성은 중국어와 한국어가 혼한 이중언어 사회이고, 중학교 담임 여선생님을 대림동에서 다시 만나 양구이 전문점을 한 계기가 비롯되었다(담임선생은 부산에서 영업중). 본래 인생이란 게 뒤죽박죽 인연이니 그런 줄 알아들었다.

주인장은 "니혼고 죠즈니 하나세마스(일본어 잘해요)" 코멘트도 날렸는데 중국에서 제2외국어로 일본어도 공부하였다. 언어적으로



풀면 삼국미연의(三國美娟意)가 되겠다. 구태의연한 질문이지만 한국 사는 좋은 점, 나쁜 점을 하나씩 일러달라 하였더니 "땅이 작아 어디로 간들 이동하기 편하고 사람들이 친절하다. 그런데 과일과 채소는 다양하지 않고 비싸다." 나름 고개가 끄덕여진다.

한전기술 직원은 주문하는 스타일과 특징만 보면 직감으로 안다는데 이걸 촬영해서 표정과 행동을 보면 어떨까 잠시 공상해 보았다. 다음에는 철판삼선과 가지튀김을 맛보라고 추천해 준다. 삼선은 해산물로서 오징어, 새우 요리를 선호하는 분에게 좋겠다. 앞치마에 큼직히 '연태구양'이란 한글이 적혀 엽전 아홉 냥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상상했다. 알고 보니 '연태'는 지명이고 '연태고양주'를 짧게 그렇게 부른다. 뉴랩에는 칭따오 맥주와 백주로서 공부가주도 메뉴에 보인다. 옆 테이블에서 '진로' 소리도 들렸기에 한국 술도 있는 것 같다. 고기 굽는 스킨도 내공인데 뉴랩은 서빙 하는 분이 알맞게 굽고 잘라준다. 그날 서빙 처자는 몽골인이었다. 주방 요리사는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출신이라 한다. 성인이면 뉴랩에서 2인분은 너끈히 흡입해야 배가 행복하다. 여기에도 옥수수 온면, 음료, 추가요리를 주문하면 금전 압박을 조금 받는다. 그러나 맛이 좋으니 모든 걸 흥겹게 수용하였다.

뉴랩에서 맛보는 양구이는 양고기 본연의 뛰어난 품질 그리고 초란과 와사비 양념 조합이 경쾌했다. 천길 낭떠러지 암반에서 두 굽 산양이 죽음을 불사하고 절벽을 아슬란이 타는 영상을 본 적 있다. 산양은 소금을 핥기 위해 그런 고비를 감내한다. 뉴랩에서 핑크 솔트 사연 물어본다는 걸 그만 빠트렸다. 이 궁금증은 독자분이 직접 가서 풀기 바란다. **E&C**

# 세계 속의 한국 와인을 꿈꾸는 여포와인농장



충북 영동의 여포 와인농장(2019년도 '찾아가는 양조장' 선정)를 찾았다.

영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와이너리가 산재한 지역이어서 와이너리 면허가 43곳이나 된다.

이는 영동군이 큰 일교차와 풍부한 일조량으로 포도재배에 적절한 탓도 크지만 2005년 12월 포도와인 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와이너리, 체험관광, 와인축제 등 3대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온 데 기인한다. 영동군 와인 터널 단지에 모여 있는 영동농업기술센터, 충북도농업기술 와인연구소와 유원 대학 와인학과, 영동와인연구회 등이 시너지를 이뤄 산학연 협력의 성공모델을 보여준다.

여포 와인농장은 삼국지에 나오는 무술이 뛰어나고 용맹한 장수 여포가 여인성 대표 별명이어서 정했다. 여포하면 중국 고대의 4대 미인(서시, 양귀비, 왕소군, 초선) 중 하나인 초선이 빠질 수 없다. 그래서인지 여포 와인농장이 만들어 내는 여섯 가지 와인 중에서 대표주는 화이트와인 '여포의 꿈 화이트'와 로제스위트와인 '초선의 꿈'이다. 증류주도 개발하고 있는데 조만간 출시될 예정이다.

머스켓 오브 알렉산드리아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청포도 품종으로 만드는 여포의꿈 화이트(375ml, 12%)는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과실주 부문 2015년 우수상, 2017년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방한한 트럼프의 딸 이방카가 참석한 청와대 방문 만찬주로 사용하였다. 이 품종은 지중해 연안의 고대 그리스에서 재배하던 역사 깊은 청포도 품종으로 프랑스 알자스 등 일부 지방에서 화이트와인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데 다른 포도에 비해 향이 좋기로 유명하다.



여포의 꿈 화이트는 수확 후 24시간 맛세레이션(침용) 후 저온 발효로 만들며 연한 살구 빛이 매력적으로 감도는 와인이다. 달콤함과 부드러운 산도의 아로마틱한 맛은 한국 화이트 와인의 매력을 그대로 느끼기 충분하다. 캠벨얼리에 하니비너스, 델라웨어 등 청포도 품종을 블렌딩한 로제 스위트 와인 초선의 꿈(375ml/750ml, 12%)은 2014년 한국와인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시음해 보니 와인을 시작하는 초급자부터 전문가까지 좋아할 맛이다. 디저트용 와인으로도 손색이 없는 깔끔한 맛이다. 로제 스위트 와인 초선의 꿈은 연분홍 장미색, 장미향과 상큼한 사과향 등이 풍부한 아로마, 감미롭고 달콤함이 매력적인 스위트 와인이다. 맛을 보니 탄닌맛이 적당히 살아 있어 유럽 와인을 즐겨 찾는 애호가들이 좋아하겠다.

대학에서는 역사학을 전공했고 얼마 전까지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다 김천역에서 역무원으로도 근무한 적이 있다는 여인성 대표는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와인동호회를 20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와인에 대한 지식과 열정을 쌓아 온 얼마 안되는 국산와인 1세대다. 우리 땅에 맞는 와인용 포도 품종을 찾아내기 위해 20여 년 동안 40여종의 와인용 포도를 재배해 왔고 2007년 12월 와이너리 면허를 취득했다. 대형업체를 제외하고는 영동지역 최초로 와인의 메카라고 불리는 영동에서 면허를 취득한 선두주자로 꼽힌다.

양조장 바로 옆에는 시험재배용으로 국산품종 청수, 알렉산드리아 등 여러 종류의 포도나무를 품종별로 시험재배하고 있고 얼마 떨어진 농장에서는 양조용 포도를 본격 재배하고 있다. 포도의 품종이나 양조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니 어느 국내 와이너리보다 독자적 전문성이 자랑할 만하다.

멋진 와인을 꿈꾸는 여포와인농장 여대표. 프랑스의 높은 와인양조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방하지 않는 것, 한국의 포도로 만든 와인이 세계의 명주와 어깨를 나란히 견주게 여포농장의 '꿈'이다. 여포 와인농장에서는 와인 무료시음, 칵테일/나만의 와인/와인피자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화 예약은 필수다.



여포 와인농장 가는 길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유점지촌길 홈페이지 및 전화 : www.yeopo.modoo.at, T. 043-744-7702

농장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조성된 영동와인터널(폭 4~12m, 높이 4~8m, 길이 420m)을 방문해도 좋다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힐링로 30, T. 043-740-3636). 여기서는 와인 전시/시음/체험/판매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테마 전시관이다. '여포의 꿈'을 비롯하여 영동지역에서 생산하는 모든 와인을 구입할 수 있다. 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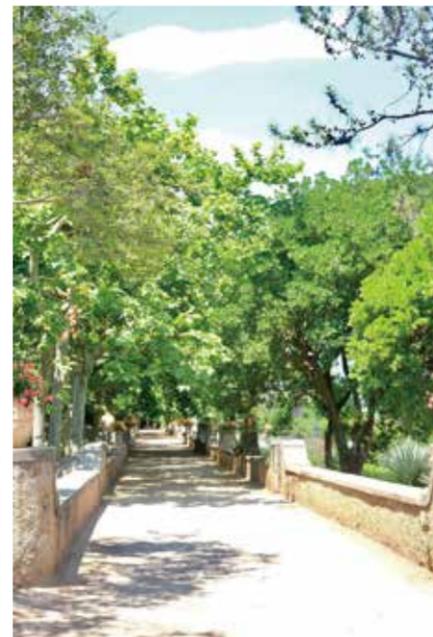
## 이탈리아 아말피 해안

적어도 2주는 있어야 하는 사람

아말피 해안은 이탈리아 남부 도시 소렌토에서 살레르노까지 이어지는 약 50km 정도의 해안지대이다. '빨리빨리' DNA가 흐르는 한국인이라면 보통 하루 안에 다 훑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 2주 머물기로 한 이유는 내 얽은 귀 때문이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곳'이라는 정보를 주워들었고,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길래 저런 수사가 따라붙었을까 궁금했다.



라벨로의 아름다운 해안절벽



라벨로의 초록의 길



라벨로의 아름다운 정원들



라벨로의 수안타 조각상

아찔한 해안절벽 위 좁은 도로를 대형버스와 수많은 차가 함께 사용하다 보니 가히 살인적 운전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남편이 운전하는 아담한 차를 타고 처음 아말피 해안을 달릴 때, 태어나 본 적 없던 수준의 장관 앞에서 잔뜩 힘이 들어가고 말았다. 2주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도 순간 망각했다. 신이 만든 드넓은 바다와 인간이 절벽 위에 만든 색색의 도시가 서로 어우러지는 모습이 놀라웠다. 지중해의 깊은 푸름과 하늘이 서로 그라데이션(gradation)을 이루고, 절벽 위 겹겹이 수 놓인 건물들의 오색찬란함, 절벽의 틈새를 채우는 나무들의 싱그러운 초록까지, 내가 본 가장 완벽한 색감의 향연이었다. 마주한 모든 아름다움을 한 조각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실 새 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너무도 황홀했고 동시에 불안했다. 마주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보다 놓쳤을 무언가(뭔지도 모르면서)에 대한 아쉬움이 커지려 했다.



다행히 하루하루 지나가며 카메라를 내려놓고 눈으로 담는 시간이 늘었다. 놓칠 것에 대한 불안이 잔잔해졌다. 불안이 증발한 자리에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이 스며들었다. 라벨로에서 보낸 시간은 달콤한 향으로 남아있다. 침브로네 정원을 천천히 산책했다. 바다와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 보는 테라스가 있었다. 시선이 향한 모든 곳이 찬란해서 부푼 마음을 진정하기 위해 여러 번 심장 위에 손을 올렸다. 자기만의 색으로 꽃 피운 꽃들에서, 마주한 무한한 바다 앞에서 분명 달콤한 향기를 느꼈다.



아말피해안

포지타노는 가장 가고 싶은 도시였다. 그래서 2주 동안 머물며 자주 눈에 담고 발로 걸었다. 이 건물들을 색색이 칠했던 사람은 분명 행복했을 것 같다고 짐작했고 괜히 나까지 즐거워졌다. 햇빛 조각과 바다 내음을 주우며 걷다 보면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고개를 돌리면 보이는 청청한 바다가 그 영화의 클라이맥스였다.

이곳이 일상 배경인 사람들이 부러웠다. 이 여행이 끝나면 어디에서 뭘 하며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했기에 더욱 그랬다. 떠나기 싫은 마음을 달랠 겸 마그넷 기념품을 사러 작은 가게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잔뜩 짜증이 나서 앉은 가게 주인을 보았다. 눈치 보며 급히 마그넷을 사서 나왔다. 내겐 너무 눈부셨던 이 동네에서 처음 본 그늘이었다. 그때

꿈에서 살짝 깼다. 아말피 해안에 온 뒤로 내내 붕 떠다니다가 처음으로 발이 땅에 닿은 순간이었다.



포지타노 소품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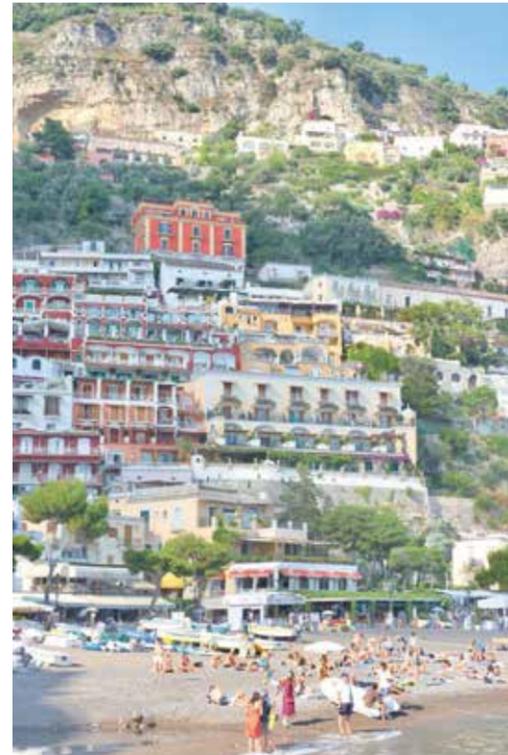
포지타노 거리의 풍경



포지타노의 달달한 바다와 여유로운 사람들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도 그곳에서도 사람은 지치고 아프고 화날 수 있다. 어디서 사느냐가 인생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영롱히 빛나던 포지타노에서 '어디에 사느냐가 전부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나의 인생 동반자 한 사람이 보였다. 가장 아름다운 건축기 전 꼭 가봐야 하는 이 도시보다도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이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그 어디든 아름다우리라는 대책 없이 달달한 생각을 하고 말았다. 작은 가게 사장님의 짜증을 보고 나서 말이다. 아무래도 아말피 해안의 아름다움에 여전히 취해 있었나 보다.



포지타노의 여유로운 휴지는 사람들

종종 그 가게 주인과 비슷한 표정을 지으며 내가 도착한 곳에서 살고 있다. 짜증 난 얼굴로 날이 서 있는 내게 자주 돌아오는 조연 중 하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는 말이다. 취지는 알겠으나 내게는 좀 버거운 말이다. 내게 남은 날이 하루밖에 없으면 아말피 해안에서의 첫날처럼 모든 소중한 것을 움켜쥐느라 불안할 것만 같다. 그러니 내게는 '2주 정도 남은 것처럼 살라'가 적절한 조연일 듯싶다. 2주 동안 아말피 해안을 거닐며 찾았던 적당한 속도를, 그렇게 나에게 스미는 아름다움을 지금 있는 이곳에서도 충분히 누리 보자는 다짐을 또 해 본다. E&C



포지타노의 의류샵의 옷들도 자유롭게

# 지상에 남길 단 한 편의 영화 '길'

'길 : 라 스트라다(La Strada)'는 삼 년마다 공중파 텔레비전에서 지금껏 보여 주었는데 살아오면서 대략 12번 정도 보았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이 영화를 몇 분씩 보고 얼핏 몇 장면을 기억하는 분도 있고 영화를 본 적 없는 사람도 아련한 트럼펫 선율 멜로디의 주제곡은 알고 있다. 오랜 흑백류의 필름이 그러하듯 이 영화는 늘 회상의 티늘로 나를 이끈다.



장돌뱅이 차려사 잠파노(안소니 퀴)와 젤소미나(줄리에타 마시나)가 나오는 떠돌이 삶 '길' 이야기는 인류 영화사의 걸작이자 지상에서 단 한 편만 남겨라면 이 작품을 손꼽는 영화평론가나 팬이 많다. 줄리에타 마시나의 백치 연기. 천재가 한 바보 연기는 정말 둘의 간격이 종이 한 장 차이임을 보여 준다.

영화 초반부, 장돌뱅이 잠파노는 동네 창녀와 눈이 맞아 또 젤소미나를 길에 내버려두고 신나게 외박 나간다. 길거리에 버림받은 젤소미나는 보도블럭에 앉아 밤을 꼬박 새운다. 아침이 되자 동네 꼬마와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거지 보듯 쳐다본다. 슬프고도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한 젤소미나.

젤소미나는 또 길을 걷는다.

그 날 동네 마을에는 미사 순례가 있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수난상이 스쳐 지나간다. 카메라는 로우 앵글



로 큰 십자가가 서서히 움직이는 장면을 장엄한 음악과 함께 찍었다. 뒤이어 거대한 화환상이 행진한다. 여기에서 카메라는 군중의 얼굴을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비추어 준다. 여러 사람들이 미사 순례의 행진을 따라가거나 길 한 옆에 서서 이 행진을 바라본다.

이런 군중들 틈 속에 파묻혀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하고 천치 같은 젤소미나가 그녀의 작은 몸과 얼굴을 드러내며 행렬의 군데군데에 나타난다. 다시 한번 더 웅장한 음악과 함께 십자가와 화환이 움직이고 군중의 물결 속에 휩싸인 젤소미나가 위를, 하늘을, 아득한 십자가를 바라본다. 저게 뭘까? 저것이 무엇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

어쩌면 이 한 컷의 장면이 '길'이라는 영화의 모든 것을 압축하여 보여 준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아득한 십자가를 올려다보는, 이 세상에서 지리멸렬할 정도로 못한 여자 젤소미나가 바라보는 하늘의 길. 도저히 닿을 수도 없을 것 같은 길. 홀륭한 마을 사람들이 엄숙히, 황홀할 정도로 바라보는 저 엄청난 하늘의 길에는 무엇이 있을까. 바보 젤소미나는 그 길을 올려다 보지만 그녀의 몸은 작고도 연약하다.

불꽃과 물결 : 이 영화의 상징은 수성(獸性)인 잠파노의 불꽃과 신성(神性)인 젤소미나의 물결이 극한적 대비를 이룬다. 잠파노가 젤소미나를 때리고 학대하며 겁탈 할 때마다 불꽃이 일렁이며 탄다. 젤소미나는 속

량할 길 없는 인간의 마음, 수성에 괴로워 울부짖으며 눈물로 밤을 지새운다.

그녀 자신이 한 방울의 성수(聖水)가 되어 대속의 길로 가는 그녀. 가장 미천한 자에게 구현되는 섭리. 그 아득한 하늘길은 바로 그녀 자신이자 길의 삶이었다. 마지막 장면에서 짐승 같은 잠파노가 해변에서 목놓아 운다. 젤소미나의 영혼이, 그 물결이 파도처럼 흘러와 그에게 와닿자 그이가 아이처럼 절절매며 운다.

나는 젤소미나가 미사 순례를 따라가며 바라보는 하늘길과 그녀의 작고 동그란 얼굴을 볼 때마다 마치 나 자신이 거대한 성당 속에 홀로 앉아 신(神)과 대면한다는 느낌이 든다. 그 순간은 참 부끄럽고 죄 많은 생각이 들어 진저리가 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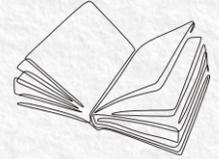
**참고** :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1957년도 흑백영화. 여배우 줄리에타 마시나는 펠리니 감독과 인연으로 결혼하였다. 영화백과사전과 영화평론서의 'The Best 10'에서 첫 작품으로 보통 소개된다. 폭력과 무지의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의 주제를 떠돌이 삶에 투영하였다. 줄거리의 짐승 같은 곡예사 잠파노에게 팔린 젤소미나는 그의 조수가 된다. 잠파노는 쇠사슬 끊는 묘기를 보이고 젤소미나는 복을 치고 춤을 춘다. 어느 날 잠파노가 옛날 친구인 곡예사 나자레노와 싸우다가 그만 그를 죽인다. 이 광경을 목격한 젤소미나가 정신이 이상해져 잠파노는 잠든 젤소미나를 내버리고 도망친다. 세월이 지난 후 잠파노는 빨래하는 아줌마의 흥얼거리는 노래에 젤소미나가 병들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E&C**

# 독자와의 수다 사보 뒷풀이

원고를 교정하면 글에 문과와 이과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과생 글은 디테일의 정확성에 집착하고 펜보다 계산기를 많이 두들기는지 스토리에 약합니다. 문과생 글은 전체 대강을 잘 잡지만 세부적 정교성이 떨어지지요. 글에는 나이, 성별 그리고 세월의 흔적도 묻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 글은 일본식 표현 잔재가 남아있었습니다. 또 옛날 무성영화의 변사체(辯士體)를 구사하지요. 예를 들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투를 요즘 쓰지 않습니다. 젊은 분은 영문법에 맞추어 우리말을 씁니다. 영어의 복문구조, 명사 복수격, 피동구문, 현재진행 시제 그대로 글을 씁니다. 그런 어법은 한국에 없습니다. 꼭 영어를 직역한 번역문 같습니다.

하나의 원고에서 심표를 30개~70개 제거할 때도 있습니다. 글쓴이가 구절마다 심표를 습관적으로 찍으면 나중에 뻘뻘해집니다. 이게 카톡, 인터넷 댓글, 게시글을 쓰면서 생겨난 현상일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심표는 호흡조절, 의미 전환, 앞글과 뒷글의 시각적 구분을 두고 싶을 때 넣습니다. 실재 없이 쏟아내는 심표는 의식의 흐름인지 분열인지 모르지만 지나치면 어지럽습니다. 생각이 쏟아지는 날, 그저 따라다니지 말고 천천히 깊은 호흡을 쉬어 보세요. 살다 보니 숨결이 가파졌나요? 발걸음을 여기저기 어지럽게 휘날렸나요? 느리고 긴 하루 심표를 찍어 보세요.

# 지난호 사보를 읽고(독자의견)



• 추천 여행지편을 시원시원하게 읽었습니다. 본격적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어디로 가서 여름을 만끽할까 고민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곳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다가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제대로 여행을 못하는데 마음만 다녀온 것 같이 마음이 행복합니다. 베트남사파 고산지대, 베어트리파크, 키웨스트 등등. 비록 처음 보는 여행지이지만 가슴 떨리고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네요.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으로 여행하면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렵니다. 다음호는 9,10월 가을호이네요. 가을의 싱그러운 향기를 제일 먼저 느끼게 해주세요. 국도번호 코스모스, 황금들녘, 가을운동회도 좋아요.  
(조만영 사외독자)

•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기술 사보 발행자님  
저는 고향이 김천시 양각면이 고향입니다.  
고향의 여러 기업들의 소식지를 통해서 고향의 소식과 발전상을 듣고 때로는 가보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장강주 사외독자)



• 사보 7,8월호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 사진은 영화나 예술 작품사진 같이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베트남 사파 고원에서 물결치는 풀과 밭의 싱그러운 초록 사진도 좋았습니다. 사보를 펼치면 사진부터 눈이 갑니다. 오뎅이란 수필은 결국 어머니에 대한 기억인 것 같네요. 옛날에는 오뎅이 귀했는가 봅니다. 잘읽었습니다.  
(이대은 사외독자)

• 이번호에서 좋았던 부분은 '강동모 이발사의 비인부전'을 읽고 이발사 일을 32년간 하시면서 평범한 일상을 잘 살아내시는 비범한 삶에 잔잔한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비인부전이라함은 '인간 됴됨이가 갖춰 지지 않은 자에게는 가르침을 줄 수 없다.'라는 뜻인데 내용을 읽다보니 이해가 갔습니다. "삶은, 한결같이, 티 내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은 얼굴과 삶에서 묻어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이발하러(?) 한번 찾아가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컬러 영화 '더 파더' 상영 할 때 볼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사보에서 보게 되니 차매 앓고 계시는 친모에 대한 거리감이 좁혀지고 심적으로 도움이 되니 꼭 관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혜 사외독자)



• 품질안전처 품질보증팀을 소개한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몰랐는데 기사를 읽고 조금이나마 한국전력기술에서 하는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에서 원전 관련 일을 포함하여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하는지 몰랐네요. 앞으로도 한국전력기술의 여러 부서들이 하는 일에 대해 쉬운 용어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최영수 사외독자)

• 매월매월 남편 회사내 다양한 소식과 더불어 김천의 향토소식을 접할수 있게 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사보의 화려한 칼라감각의 걸지와 속지 색감도 내용을 돋보이게 그 한 몫을 톡톡히 하죠. 환경을 생각하는 원자력 회사의 입장에서, 첫째 사보를 감싸고 있는 비닐지 위의 <주소인쇄스티커>를 한번에 뺄수 있는 스티커로 바꿨으면 합니다. 지금은 그 스티커를 뜯어서 비닐을 재활용하려면, 도저히 깔끔하게 떼지지가 않네요. 둘째 속지를 친환경 재생종이로 사용하고, 그 사실을 안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만한 것부터 개선해 나간다면 환경을 보호하는데 한 발 짝 더 가까이 갈수 있으리라 봅니다.  
(양경화 사외독자)

## 원고모집

4차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블록체인, 로봇과학, 사이버보안에 관한 원고를 기다고 있습니다.

▶ 분야 : 과학과 기술(Sci-Tech) ▶ 원고분량 : A4, 2면

'둘도 없는 내 친구'로 평생 정을 나누며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절친을 찾고 있습니다. 본인과 친구 1명이 함께 2인으로 산책, 식사하면서 즐겁게 대화 나누는 대담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분야 : 기획코너 ▶ 원고분량 : A4, 2면

원고료(7만원) 제공 계획, 신청하시고 계획 알려주시면 기타 지원 방안을 협의

'나의 반려동물' 자신과 늘 함께하는 고양이, 개, 물고기, 식물, 새에 관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특히 캣맘, 유기견 보호 활동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종류와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분야 : 기획코너 ▶ 원고분량 : A4, 2면

원고료(7만원)와 사진료(3만원) 제공 계획

독자의견도 10월 5일까지 memolee7@kepco-enc.com으로 보내주세요.

## 당첨자 발표

◆ 이달의 한컷! : 커피쿠폰 1만원

- 윤광렬 (토건환경기술실 부장)
- 전창빈 (기계배관기술실 부장)
- 이형석 (원자력기술실 차장)
- 유성호 (토목환경기술실 처장)
- 김범천 (원자력사업처 차장)

◆ 독자의견 : 도서문화상품권 3만원

- 조만영 (사외독자)
- 이대은 (사외독자)
- 유은혜 (사외독자)
- 장강주 (사외독자)
- 양경화 (사외독자)